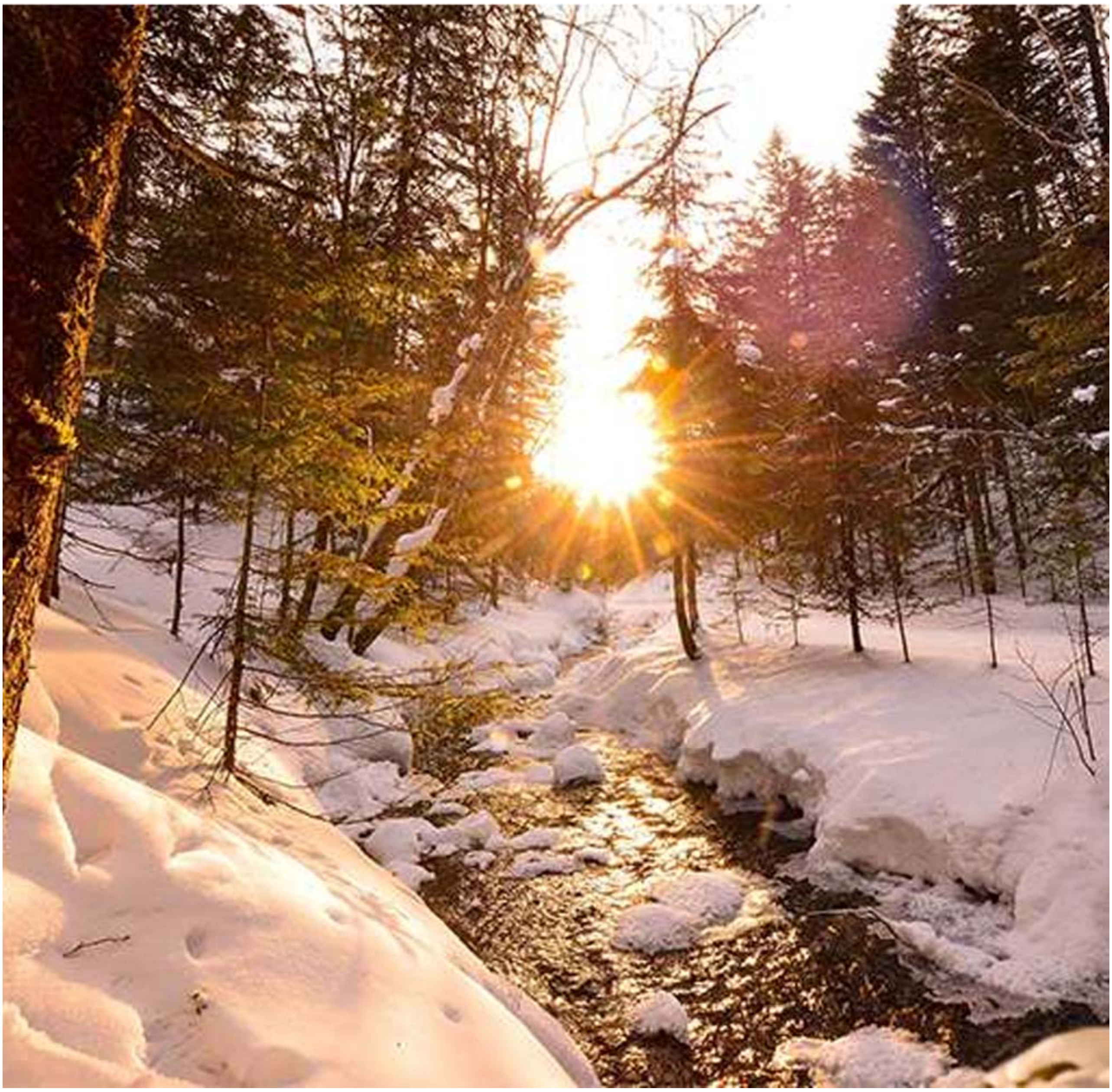
백두-한나

재중조선인총련합회
旅中朝鲜人总联合会

주체112(2023) 2
http://www.paekdu-hanna.com





경원경제개발구

qingyuankaifaqu

위치: 함경북도 경원군 류다리섬리 면적: 1.91km2
업종: 전자제품, 정보산업제품. 수산물가공,
피복가공, 식료가공업, 관광업. 전체 섬령역을
2개로 나누어 두만강상류부분은 국제상업관광전람구역으로,
두만강하류부분은 개발산업구역으로 꾸릴것을 계획하고있다.
국제상업관광전람구역에는 검사구획, 보세구획, 전시장과
생태온실구획, 음식거리와 민속건축구획, 휴양 및 료양촌을
계획하고있다.
개발선업구역에는 첨단산업구획과 일반산업구획을
계획하고있다.

차례 Contents

혁명활동소식
gemingHuodongxiaoxi

총련합회소식
CHAOZONGLIANXIAOXI

백두 - 한나
PAEKDU-HANNA

조국소식
CHAOXIANXIAOXI

우리민족한마당
womenminzudajiating

중국소식
zhongguoxiaoxi

조중왕래
chaozhongwanglai

국제단신
guojiduanxin

상식
changshi

앞표지:
2 월의 백두 성지

조선인민군창건 75돐경축 열병식 성대히 거행

반만년민족사에 처음으로 자주,자립,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운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무장력으로 명성과 위용을 떨치며 부국강병의 대업을 제일선에서 받들어온 조선인민군의 영웅적인 75 성상이 주체혁명사에 긍지높이 빛나고있다.

항일의 혁명전통을 피줄기로 물려받은 우리 인민군대는 조선로동당의 사상과 령도에 대한 절대충성을 존립과 발전의 본령으로 삼고 조국보위전,인민사수전의 혁혁한 군공높이 줄기찬 상승행로를 이어왔으며 우리 국가를 세계최강의 전렬로 억세게 떠받치는 주체조선의 무쇠주먹, 무진막강한 국력의 실체로 장성강화되였다.

우리 당의 혁명적무장력인 조선인민군창건 75돐을 경축하는 성대한 열병식이 2 월 8 일 수도 평양의 **김일성**광장에서 거행되였다.

자주독립국가의 넋이고 상징인 정규무력의 탄생을 선포한 건군열병장에서 온 나라 인민의 격정의 환호와 크나큰 기대속에 성스러운 사명과 웅대한 포부를 안고 최정예강군의 목표실현을 위한 첫걸음을 힘차게 내짚은 조선인민군.

혁명의 간고하고 장구한 려정에서 조선로동당의 독창적인 자위적군사사상과 탁월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의 정규무력은 청소하였던 자기의 총창을 붉은 사상과 자력으로 억세게 벼려 제국주의폭제를 완벽하게 제압분쇄할수 있는 절대적힘을 비축한 최강의 실체로 변화되였으며 오늘은 자기의 그 막강한 힘을 만천하에 시위하며 뜻깊은 건군 75돐기념 열병광장에 들어서게 된다.

건군절기념열병식이 거행되게 될 **김일성**광장과 그와 잇닿은 대통로들에는 강군의 위용넘친 혁명무력의 각 군종, 병종대오들과 첨단무장장비들이 엄숙히 정렬해있었다.

열병식주악을 맡은 공훈국가합창단이 입장하였다.

장엄한 무력시위의 전투적열광을 점화하며 미더운 항공륙전병들이 난도높은 집체강하기교로 활공하면서 건군절의 밤하늘에 환희로운 불보라를 펼치고 찬연한 광채를 뿌리는 국기와 당기를 거폭으로 휘날리며 날아내렸다.



이어 혁명군가의 기백넘친 선률로 광장을 진감하며 종합군악대의 례식이 진행되였다.

적진을 짓뭉개며 돌진하는 철의 사단의 발구름소리와 같은 박력있고 전투적인 곡조로 관중들의 심장을 틀어잡으며 군악대원들이 변화무쌍한 률동대형으로 인민군대의 력사와 전통,최대의 사명과 필승불패성을 상징하는 오각별과 《2.8》, 《75》 등의 수자들에 이어 당마크와 《강군》이라는 글발을 광장바닥에 련이어 새기였으며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들이 능란하고 재치있는 무기교를 펼치였다.

4.25 의 혁명정신을 계승한 조선인민군의 탄생을 온 세상에 알린 주체 37(1948)년 2 월 8 일.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정규적혁명무력이 창건된 력사의 이날이 있어 우리 조국은 자기의 존엄과 자주권,발전권에 대한 억척의 담보를 가지고 승승장구의 활로따라 찬연한 영예의 서사시를 수놓아왔으며 그 어떤 강적과도 정면승부를 낼수 있는 무적강군이 우뚝 솟구쳐올랐음을 기백있는 률동과 선률에 담아 보여준 례식은 열병광장의 경축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조국의 령토와 령해, 령공을 철옹성같이 지켜선 우리 혁명무력의 정규화적면모를 과시하며 열병부대들이 금별의 위훈 빛나는 영광의 군기를 앞세우고 대열병관현악에 맞추어 위풍당당히

광장으로 입장하였다.

당중앙두리에 철벽의 진을 치고 당과 혁명,조국보위의 성전에서 충성과 위훈의 력사만을 아로새겨온 우리의 혁명무력.

건군초창기에 벌써 제국주의련합세력과 결연히 맞서 1950 년대 행성에 또다시 엄습하던 세계대전의 참화를 막아내는 력사적공적을 이룩하고 무적의 군력으로 우리 국가의 불패성과 강대성을 떠받들며 세계의 평화와 정의를 굳건히 수호해가는 천하제일강군의 위상이 열병대원들의 름름한 모습과 서리발치는 총창마다에 용솟음쳤다.

조선인민군 각급 련합부대 군기입장의식이 있었다.

년대와 세기를 이어 조선혁명의 억센 숨결을 지켜주고 위대한 우리 국가,위대한 우리 인민을 위해 승리에서 더 큰 승리,영광에서 더 높은 영광을 안아온 영웅적인 군대,애국적인 군대의 긍지높은 투쟁사가 집대성된 백승의 군기들이 열병광장을 덮으며 들어섰다.

혁명강군의 존엄과 영예의 상징이고 신념의 표대인 조선인민군 군기들이 위풍을 돋구며 광장주로에 도렬하였다.

경축의 광장에 정렬한 전체 열병대원들,전군의 장병들이 건군절의 이밤 우리 당과 국가,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공화국무력의 총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열을 받을 력사의 시각을 숭엄한 격정속에 기다리고있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사랑하는 자제분과 리설주녀사와 함께 광장에 도착하시였다.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 영접의식이 엄숙히 진행되였다.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와 공화국무력의 주요부대 군기들을 사열하시였다.

김정은동지를 국방성 지휘관들과 대련합부대장들을 비롯한 조선인민군 장령들이 정중히 영접하였다.

인민군대를 당의 군대,인민의 군대,정권의 군대,계급의 군대로 억세게 키워주시고 건군 75 돐을 온 나라의 대경사로,대정치군사축전인 최상최대의 열병식으로,조선의 위대한 영광으로 뜻깊게 경축하도록 하여주신 **김정은**동지께 군지휘관들은 최대의 경의를 삼가 드리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군력강화의 전초선과 조국의 부강번영,인민의 행복을 위한 격전장들에서 혁명군대의 전투적기상을 떨쳐가고있는 군지휘관들을 뜨겁게 고무격려해주시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열병광장 주석단에 나오시였다.순간 탁월한 군사전략사상과 비범한 령군술로 혁명무력발전의 대상승기,군력강화의 새로운 장을 열어놓으시고 주체강국의 휘황한 래일에 대한 확신을 가슴벅차게 안겨주신 위대한 령장을 우러러 전체 열병대원들과 경축행사참가자들이 터치는 폭풍같은 《만세！》와 《**김정은**》,《결사옹위》의 함성이 뢰성마냥 터져올라 온 광장이 격정의 도가니로 화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열병대원들과 관중들에게 손저어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김정은동지께 소년단원들이 향기그윽한 꽃다발을 드리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총리인 김덕훈동지,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리병철동지,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리영길동지와 강순남동지,박수일동지,정경택동지를 비롯한 무력기관 책임일군들,조선인민군 대련합부대,련합부대 군정지휘관들이 주석단에 등단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조직비서인 조용원동지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리일환동지,김재룡동지,전현철동지가 존경하는 자제분을 모시고 귀빈석에 자리잡았다.

조선인민군창건 75 돐 경축행사참가자들과 특별대표로 초청된 원군미풍열성자들이 초대석에 자리잡고있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게양식이 엄숙히 거행되였다.

전체 열병부대들과 조선인민군 각급 련합부대 군기들의 경의를 받으며 명예위병들이 받쳐든 람홍색국기가 게양대로 향하였다.

국위제고,국권수호,국익사수의 성스러운 사명을 지닌 최강의 혁명무력의 전투적기상이 떠올리는 영광의 국기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장중히 울려퍼지는 속에 서서히 게양되였다.

우리 당과 국가,군대의 창건자,건설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고귀한 한생이 어리여있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세기의 창공높이 휘날려가시는 주체조선의 국기에 열병식참가자들과 전군의 장병들,온 나라 인민은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주체의 사회주의 우리 조국을 이 세상 다할 때까지 열렬히 사랑하고 무궁토록 빛내여갈 천만 심장의 불변의 의지를 활화로 분출시키며 축포가 터져오르고 수많은 고무풍선이 날아올라 열병광장을 감격과 환희로 끓게 하였다.

노래 《빛나는 조국》의 장중한 주악이 울리며 21 발의 례포가 발사되였다.

이어 열병식준비검열이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인 리병철 원수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상 강순남동지가 열병부대들이 열병식준비검열을 받기 위하여 정렬하였음을 보고하였다.

리병철동지가 열병부대들을 점검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리병철원수가 조선인민군창건 75 돐경축 열병식이 준비되였음을 정중히 보고올리였다.

드디여 영광스러운 우리 공화국의 백전백승사를 빛내여온 혁명강군의 장엄한 열병행진이 개시되였다.

열병대오의 선두에서 명예기병종대가 혁명의 수령이 개척한 한길따라 변함없는 한보폭으로 줄기차게 달음쳐온 우리 인민군대의 본연의 자세,빨찌산정신을 굳건히 이어가는 계승의 력사를 보여주며 호기찬 말발굽소리높이 위엄을 돋구었다.

조선혁명의 넋이고 생명인 수령결사옹위정신을 창조하여 주체혁명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준 성스러운 전통을 보여주는 항일의 7 련대상징종대가 《반일인민유격대》글발을 새긴 우리 혁명무력의 첫 군기를 높이 들고 용진해갔다.

혁명무력투쟁사에 불멸할 승리전통의 시원을 마련해준 김책동지, 안길동지, 최용건동지, 오중흡동지, 김일동지, 김주현동지, 오백룡동지, 강건동지를 비롯한 항일혁명선렬들의 숭엄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열병대오의 전렬에 군기와 더불어 빛났다.

준엄한 포화속에서 최고사령부를 옹위하여 결사의 방탄벽이 되였던 조국해방전쟁시기 친위중대상징종대가 현철해동지, 연형묵동지, 박송봉동지, 심창완동지, 전병호동지를 비롯한 친위중대출신 로혁명가들의 초상사진을 대오앞에 세우고 광장에 들어섰다.

세월이 흐르고 세대는 바뀌여도 위대한 수령을 따라 가장 성스러운 혁명위업에 바친 전사들의 삶은 당과 조국과 인민의 기억속에 영원하다는 진리를 다시금 확신하며 관중들은 건군사에 아로새겨진 충신들의 모습에 격정어린 시선을 모았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사에 그 이름 빛나는 제 1 국방사단, 제 2 경보병사단, 제 3 독립보병려단, 제 4 보병사단 상징종대들도 최광동지,최현동지,류



경수동지,오진우동지,남일동지 등 부대연혁과 우리 혁명무력의 강화발전사에 뚜렷한 자취를 남긴 지휘관들의 초상사진을 들고 보병총으로 원자탄을 타승한 근위병들의 멸적의 기개를 떨치

며 나아갔다.

주체혁명의 성스러운 전통과 계승성을 뚜렷이 보여준 상징종대들의 뒤를 이어 당중앙결사옹위이자 곧 조국수호이고 혁명의 전진이며 승리이라는 복무의 철학, 백승의 철학을 웅변하며 당중앙위원회호위처종대,국무위원회 경위국종대,호위국종대,호위사령부종대가 보무당당히 행진해나갔다.

수령결사옹위야말로 우리 혁명무력이 창군의 첫 시기부터 신념의 표대로 내세운 최대의 사명이고 건군사에 쌓아올린 가장 빛나는 업적이며 우리 장병들이 긍지높이 자부하는 최고의 영예이라는 절대불변의 철리가 열병대원들의 얼굴마다에 뜨겁게 어려있었다.

적들이 그 이름만 들어도 공포에 떠는 정예부대들의 군기를 휘날리며 조국수호의 전초선에서 최대의 격동상태를 유지해나가고있는 군집단들이 장검을 비껴든 지휘관들을 위시하여 힘찬 발걸음을 내짚었다

인민군대의 맏아들군단,중추군단의 위력떨치며 당중앙의 작전적구상을 앞장에서 받들어나가는 일선야전무력의 열병종대마다에 만단의 결전진입태세를 갖춘 최전연장병들의 멸적의 기상이 용솟음쳤다.

바다의 결사대,하늘의 방패로 용맹떨치는 해군,공군종대와 공화국무력의 불가항력의 상징인 전략군종대,특수작전군종대들도 당중앙이 출전명령만 내리면 질풍노도쳐나가 적들을 섬멸하고 승리의 개가를 높이 울릴 전투정신으로 충천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준엄한 나날에나 평화로운 나날에나 항상 혁명의 전위, 계급의 전위에 굳건히 서서 조선혁명의 혈통,우리 당의 사상과 위업을 결사보위해나가는 근위병들에게 전투적인사를 보내시였다.

주체혁명의 새시대 강군건설의 총적임무와 4대 강군화로선을 제시하시고 군력강화의 지름길을 밝혀주시여 우리 혁명무력을 조선로동당화된 정치사상강군, 도덕강군, 첨단화된 강군으로 비상히 강화발전시키신 강철의 령장을 우러러 열병대원들은 목청껏 《만세!》의 함성을 터치였다.

영광의 군기를 추켜들고 보무당당히 행진하는 열병종대들의 위엄과 강군의 끝없는 긍지,전투적기세가 하늘을 찌르는 광장으로 수도 평양의 방어임무를 맡은 군단들과 조국의 해안과 국경연선,후방의 종심을 굳건히 지켜가는 군단종대들이 기운차게 용진해갔다.

최고사령부가 가리키는 진격의 화살표따라 작전지대들을 단숨에 깔고앉을 무쇠타격집단인 땅크장갑사단,기계화보병사단종대들과 정찰총국종대에 이어 제191지휘정보려단종대를 비롯한 전문병,근무병종대들이 발구름을 높이였다.

제1기동병원종대가 광장에 들어서자 관중들은 지난해 수도에 조성된 보건위기를 평정하기 위한 비상방역전에서 우리 당의 믿음직한 별동대,위대한 **김정은**시대 혁명군대의 고상한 정신세계를 남김없이 보여주며 특출한 군공을 세운 군의부문 전투원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내주었다.

주체군사교육의 최고전당인 **김일성**군사종합대학종대,나라의 최고급군사지휘관양성의 중심기지인 **김정일**군정대학종대,인민군대정치일군양성의 원종장인 **김일성**정치대학종대를 비롯한 각급 군사학교종대들에서 당중앙이 지펴준 군사교육혁명의 불길높이 당의 강군화위업실현에 이바지할 맹세를 담아 터치는 함성이 경축광장을 진감하였다.

사회주의조국의 영원한 찬가인《세상에 부럼없어라》가 울려퍼지는 속에 주체위업의 억년청청함을 담보하는 핵심골간육성의 원종장에서 혁명의 원피줄기를 줄기차게 이어갈 유능한 인재들로 억세게 준비해가는 혁명학원학생들이 도보종대의 마감을 장식하며 용기백배, 기세충천하여 전진해갔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선렬들이 물려준 충성과 애국의 바통을 이어 우리 혁명무력과 조국의 밝은 미래를 떠받들어나갈 결의를 안고 보무당당하게 행진해나가는 혁명의 계승자들에게 손을 높이 드시여 고무격려해주시였다.

위대한 태양이 빛나는 주체강국의 휘황한 래일에 대한 확신과 끝없는 격정이 용암마냥 분출하였다.

건군절경축광장의 밤하늘을 진감하며 주체적공군무력의 열병비행이 시작되였다.

당중앙이 안겨준 불굴의 전투정신을 피끓는 심장마다에 만장약한 하늘의 결사대, 불사조들이 조종간을 틀어잡고 기운차게 날았다.

태양을 가장 가까이에서 옹위하는 충성의 별이 되여 조국의 푸른 하늘을 지켜온 우리 인민공군의 위훈,강군의 력사를 2 월의 하늘가에 아로새기듯 오각별과 수자 《75》를 형상한 비행종대가 눈부신 축포탄을 쏘아올리며 광장상공을 통과하였다.

당중앙뜨락에 신념의 활주로를 이어놓고 결사옹위의 항로만을 날으며 무비의 공중신화를 창조해나갈 비행사들의 철석의 의지를 비행운에 비껴담고 부채살을 형상한 편대가 장쾌한 폭음을 울리며 창공을 헤가르자 관중들은 연해연방 탄성을 터치였다.

조국과 인민의 존엄과 안녕,진정한 평화를 위해 건군의 초행길을 세계적인 군사강국건설의 활로로 이어온 우리 당의 자위적국방건설사를 보여주며 기계화종대들의 열병진군이 시작되였다.

351고지와 1211고지전투에서 원수격멸의 불을 뿜던 중기를 실은 마차종대를 선두로 모터찌클종대, 반전차포종대, 평사포종대,땅크종대들을 비롯하여 조국해방전쟁시기의 기계화상징종대들이 광장에 들어섰다.

《강대성》의 신화를 뽐내던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세력과 정면대결하기에는 너무도 청소하고 빈약한 무장장비들.

그러나 위대한 수령의 령도를 받는 혁명무력의 정치사상적, 전략전술적우세로 제국주의무력침범자들의 수적, 기술적우세를 여지없이 타승한 위대한 년대의 위훈이 탄우속을 헤쳐온 포신들에 어려있었다.

기계화상징종대들에 이어 우리 공화국 국방력의 선진성과 현대성,강대성을 과시하며 조선인민군의 주력무장장비들이 등장하였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김정은**동지의 비범특출한 군사전략사상과 현명한 령도밑에 천하무적의 초대강국으로 급부상한 주체조선의 첨단병기들을 위시한 정의로운 힘의 장엄한 시위가 시작되였다.

인민군대의 전투력의 상징이며 무쇠주먹인 주력땅크종대가 멸적의 굉음을 높이 울리고 그 뒤로 포병무력이 강철포신을 추켜들고 광장을 누벼나갔다.

높은 기동성과 타격력을 자랑하는 핵심공격형무기들의 흐름이 이어지자 관중들은 박수갈채를 보내며 열렬히 환호하였다.

전술미싸일종대와 장거리순항미싸일종대들이 광장으로 진입하였다.

강위력한 전쟁억제력, 반격능력을 과시하며 도도히 굽이쳐가는 전술핵운용부대종대들의 진군은 위엄으로 충만되고 무비의 기세로 충천하였다.

끝없는 자부와 긍지에 넘친 관중들의 환호와 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른 열병광장에 공화국국방력의 변혁적인 발전상과 우리 국가의 최대의 핵공격능력을 과시하며 대륙간탄도미싸일종대들이 등장하였다.

핵에는 핵으로, 정면대결에는 정면대결로!

오직 수령의 명령만을 받들어 언제든 자기의 전략적사명에 충직할 림전태세로 충만되여있는 전략미싸일부대 전투원들의 도도한 기상이 굽이치는 광장으로 대하를 이룬 공화국전략무력의 거대한 실체들이 지심을 울리고 용감한 위용을 시위하며 진군하였다.

천리혜안의 선견지명과 단호한 결단, 탁월한 령도력으로 우리식 국방발전의 완벽한 지름길을 진두에서 개척하시고 강력히 인도해주시며 세계최강의 전략무기완성이라는 특대사변으로 우리 국가의 국위와 존엄을 온 세상에 빛내여주신 만고절세의 애국자이시며 우리 당과 국가, 인민의 탁월한 령도자이신 **김정은**동지를 우러러 전체 참가자들은 폭풍같은 《만세!》를 목청껏 터쳐 올리였다.

이 세상 그 어떤 강적도 범접할수 없는 필승의 총대를 억세게 틀어쥔 백전백승의 영웅군대 조선인민군의 열병식이 끝나자 위대한 령장께 드리는 천만장병들과 인민들의 최대의 경의와 영광의 환호성이 하늘땅을 진감하는 가운데 또다

시 황홀한 축포가 터져올라 건군절의 밤하늘을 환희롭게 장식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군중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열병광장은 당중앙이 벼려준 정의의 총대,백승의 보검을 억세게 틀어쥐고 세계가 괄목하는 경이적인 군사적기적을 창조한 무궁무진한 힘으로, 불가능을 모르는 영웅조선의 절대의 의지로 주체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과 조국의 영원한 안전,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부흥발전을 굳건히 담보하며 인민의 꿈과 리상을 반드시 실현해나갈 천하제일강군의 드높은 혁명적기상과 열의로 세차게 끓어번지였다.

혁명강군의 최상의 존엄과 필승불패의 힘의 원천,영원한 생명력은 위대한 수령,위대한 당의 령도를 받는데 있으며 바로 여기에 그 어느 나라, 그 어느 군대도 가질수 없는 조선인민군특유의 영예와 자부가 있다는것이 영광스러운 건군력사의 가장 빛나는 총화이며 오늘의 열병식이야말로 행성의 모든 악과 불의의 세력을 쓸어버릴



필승불패의 군력을 일떠세운 조선로동당의 만고불후의 업적을 보여주는 자랑찬 축도이다.

우리 혁명무력의 장구하고도 성스러운 력사를 가장 빛나는 영광의 절정에 올려세운 조선인민군창건 75돐경축 열병식은 천하제일의 령장이신 위대한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조선로동당의 붉은 기발을 제일군기로 추켜들고 나아가는 일당백혁명강군의 전투적기상과 주체혁명위업의 끝없이 양양한 전도를 만천하에 힘있게 과시한 일대 정치적사변으로 청사에 길이 빛날것이다.









화성지구 2단계 1만세대 살림집건설착공식 진행

전진하는 사회주의, 승리하는 우리 위업의 상징인 건설혁명의 불길높이 세기적인 변혁을 이룩해가는 당중앙의 탁월한 령도에 의해 인민의 꿈과 리상이 현실로 끊임없이 펼쳐지는 조국번영의 거창한 진군길에 수도건설의 장엄한 뢰성이 또다시 울려퍼지였다.

자립, 자력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전면적부흥발전의 새 지평을 열어나가는 우리 국가의 무진한 저력과 휘황한 래일에 대한 인민의 확신을 백배해주며 2023년도 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건설사업인 화성지구 2단계 건설착공식이 2월 15일에 진행되였다.

건설의 대격전을 선포하게 될 착공식장은 우리 인민이 제일 반기는 살림집건설을 제1차적인 중요정책과제로 내세운 당의 뜻을 충성과 애국의 실천으로 받들어 인민의 행복이 넘쳐나는 사회주의번화가를 다시금 보란듯이 펼쳐갈 군민건설자들의 격양된 투쟁열의로 세차게 끓어번지고있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착공식에 참석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착공식장에 도착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사회주의리상실현의 위대한 개척자, 창조자가 되시여 인민의 락원을 하루빨리 일떠세우시기 위해 불철주야의 헌신과 로고를 바쳐가시는 우리당 총비서동지를 우러러 열광의 환호를 터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인 김덕훈동지, 조용원동지와 당중앙위원회 비서들인 리일환동지, 전현철동지, 평양시당위원회 책임비서 김수길동지, 내각부총리 박훈동지, 성, 중앙기관, 평양시안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착공식에 참가하였다.

강순남동지, 김정관동지를 비롯한 무력기관의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착공식이 선언되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장중하게 주악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총리인 김덕훈동지가 착공식 연설을 하였다.

김덕훈동지는 우리 당중앙이 지펴준 건설혁명의 불길높이 수도건설의 새 전기를 열어나가는 보람찬 창조자, 개척자들답게 련속적인 대건설전투에 진입하는 군민건설자들에게 공화국정부의 이름으로 뜨거운 전투적인사를 보내였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가 올해 중요건설전선을 확대하면서도 화성지구 2단계 공사를 드팀없이 내밀것을 결정하였다고 하면서 그는 막아서는 곤난이 아무리 혹독하여도 인민들이 제일 반기는 살림집건설만은 반드시 실행하여야 한다는것이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이며 확고부동한 의지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건설은 인민들이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향유하는 사회주의락원을 하루빨리 일떠세우기 위해 당 제8차대회가 결정한 중대사항이며 우리 당이 구상하고 추진하고있는 기본과업들중 첫째가는 목표이라고 하면서 올해 수행하여야 할 평양시 1만세대건설의 중요성과 의의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우리 인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안겨줄 웅대한 계획실행을 위한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고 공사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세심히 가르쳐주시며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취해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현대적도시구획의 면모를 갖춘 화성지구 1단

계 구역에 이어 2단계 공사가 완공되면 이 일대가 우리 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고 조형예술성과 현대문명이 조화를 이룬 아름답고 웅장한 거리와 구역으로 전변될것이며 이것은 그대로 우리 힘으로, 우리 식대로 창조하고 변혁해나가는 우리 국가의 발전잠재력과 양양한 전도에 대한 일대 과시로 된다고 말하였다.

오늘의 착공소식은 당중앙의 숭고한 인민관, 열화같은 애국헌신의 령도를 받들어 뜻깊은 올해의 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선 전체 인민들을 새로운 기적과 변혁에로 힘있게 고무격려할것이며 착공의 발파소리는 오직 당정책절대옹위, 당결정결사관철만을 아는 수도건설자들의 불굴의 각오와 맹세의 메아리로 높이 울려퍼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전체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위대한 **김정은**시대 수도건설에서의 눈부신 기적으로 당중앙의 권위를 옹위하자는 신념과 투지로 화성지구의 천지개벽을 안아오기 위한 거창한 창조대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김덕훈동지는 화성지구에 솟구쳐오르는 창조물들은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원대한 리상을 내세운 우리 투쟁의 성스러운 증견자로 후세토록 빛을 뿌릴것이라고 하면서 위대한 당중앙에 영광의 보고를 드릴 그날을 위하여, 위대한 우리 국가의 부강발전과 인민의 복리를 안아오기 위한 보람찬 투쟁의 승리를 향해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였다.

전체 건설자들은 당의 부름에 언제나 산악같이 떨쳐일어나 완벽한 실천으로 화답해온 애국충성의 긍지높은 전통을 이어 새로운 화성속도, 화성신화를 창조함으로써 애국애민의 숭고한 경륜을 수놓아가는 우리 당의 멸사복무의 세계를 인민의 리상거리의 눈부신 자태로 펼칠 확고부동한 의지를 담아 결사관철의 구호들을 우렁차게 불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화성지구 2 단계 1 만세대 살림집건설의 착공을 알리는 발파단추를 몸소 누르시였다.

순간 건설장전역을 뒤흔드는 장쾌한 뢰성에 이어 축포탄들이 터져오르고 참가자들이 웨치는 환호성이 하늘땅을 진감하였다.

더욱 아름다와지고 웅장해질 우리 수도의 래일,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향유할 부모형제들을 위하여 비상한 혁명열, 애국열로 당 제 8 차대회가 제시한 살림집건설목표를 반드시 점령하고야 말 건설자들의 드높은 열정과 전투적기백이 착공식장에 차넘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국가의 잠재력과 우리 인민의 창조력을 다시한번 힘있게 떨치기 위한 장엄한 대건설투쟁에 충천한 기세로 또다시 총궐기해나선 전체 건설자들에게 손저어주시며 뜨겁게 고무해주시였다.

평양시 5 만세대 살림집건설의 세번째 해인 올해에 화성지구에 련속적으로 전개되는 건설대전은 위대한 당중앙의 향도따라 막아서는 시련과 도전을 과감히 딛고 우리 식, 우리 힘, 우리 손으로 사회주의 새 문명, 새 생활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 조선인민의 불가항력적기상을 자랑찬 변혁적실체로 뚜렷이 실증하게 될것이다.

본사정치보도반







강동온실농장건설착공식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참석하시여 몸소 착공의 첫삽을 뜨시였다

조선로동당의 위대한 향도따라 창조와 건설의 대번영기를 펼치며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에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국가의 도도한 전진기상, 우리 인민의 충성과 애국의 힘이 총분출되는 속에 평양시민들을 위한 현대적인 온실농장건설이 시작되였다.

올해의 거창한 변혁과 발전을 상징하는 또 하나의 창조대전인 수도의 대규모온실농장건설은 인민의 행복넘친 모습에서 무한한 힘과 열정을 배가하며 국가발전, 농촌진흥의 새로운 장을 확신성있게 열어나가는 우리 당의 원대한 웅략과 구상이 진군의 화살표, 변혁의 설계도가 되여 전개되는 중대한 사업이다.

인민의 복리를 위함에 천사만사를 철저히 복종지향시켜나가고있는 당중앙은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고조국면을 열기 위한 발전방략을 책정한 력사적인 제8기 제6차전원회의에서 강동지구에 대온실농장을 일떠세우는것을 중요건설과제로 결정하고 인민군장병들에게 또다시 영예로운 전투임무를 하달하였다.

강동온실농장건설착공식이 2월 15일에 진행되였다.

착공식장은 인민을 위한 우리 군대의 헌신적인 투쟁사에 또 하나의 빛나는 한페지를 아로새기게 될 장엄한 건설전역에 다시금 내세워준 당중앙의 크나큰 믿음을 피끓는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달려온 인민군장병들의 무한한 전투정신과 충천한 기세로 세차게 끓어번지고있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착공식에 참석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 도착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이 땅우에 인민의 웃음과 행복이 넘쳐나는 사회주의락원, 문명부흥하는 강국을 일떠세우시기 위해 위민헌신의 장정을 쉬임없이 이어가시는 총비서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충성의 마음을 담아 열광의 환호를 터쳐올리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조직비서인 조용원동지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리영길동지, 평양시당위원회 책임비서 김수길동지, 강동군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착공식에 참가하였다.

강순남동지, 김정관동지, 김광혁동지를 비롯한 무력기관의 주요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이 참가하였다.

착공식이 선언되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장중하게 주악되였다.

조용원동지가 착공식연설을 하였다.

조용원동지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오래전부터 구상하고 준비해오신 또 하나의 중요한 건설대상이 드디



여 착공의 시각을 맞이하였다고 하면서 당중앙의 특별명령을 피끓는 심장마다에 받아안고 또다시 대규모온실농장건설장으로 용약 달려온 영용한 인민군장병들에게 당중앙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뜨거운 전투적인사를 보내였다.

인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남새를 넉넉히 보장해주는 문제는 당에서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며 가까운 몇해안에 기어이 해결하자고 하는 최우선적인 중대사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지난해 10 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완공된 련포온실농장을 돌아보시면서 앞으로 건설할 온실농장은 련포온실농장보다 지능화, 집약화수준이 더 높은, 한세대 더 발전된 온실농장으로 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평양시에 새로 일떠세울 온실농장건설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강동온실농장을 맛좋고 영양가높은 잎남새, 열매남새, 기능성남새들을 대대적으로 생산하는 실리가 큰 농장으로, 현대적이고 문화적인 로동환경과 생활환경을 보다 훌륭히 갖춘 리상적인 농장으로 잘 꾸려 인민들의 식생활개선과 새시대 농촌진흥을 추동하는 거대한 동력이 되게 하자는것이 당중앙의 의도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인민군장병들의 견인불발의 투쟁모습은 당과 수령앞에 다진 맹약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며 어떤 정신과 투지로 오늘의 난국을 뚫고나가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산 귀감으로 될것이며 긴장한 건설전의 하루하루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한몸 다 바칠 의지로 충만된 군인건설자들에게 충성과 애국의 사명감을 백배해주는 영원히 잊지못할 체험으로, 더없이 긍지높고 보람넘친 나날로 간직될것이라고 말하였다.

관병들의 앙양된 열의가 대담한 실천과 훌륭한 결실로 이어질수 있도록 작전과 지휘를 치밀하게 전투적으로 하고 화선선전, 화선선동의 맹렬한 공세를 전개하며 모든 군인건설자들이 당중앙의 존엄과 권위를 철저히 보위할 투철한 각오를 안고 건설물들마다에 지극한 정성을 고임으로써 당의 군대, 인민의 군대의 진정한 창조본때를 유감없이 발휘할것을 당부하였다.

조용원동지는 당과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힘차게 싸우는 우리 군대의 전진기상은 당중앙전원회의 결정관철에 총궐기한 온 나라 인민들에게 필승의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줄것이라고 하면서 모든 군인건설자들이 강동지구에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의 선진성을 대표하는 본보기적실체를 보란듯이 일떠세우고 당중앙에 영광의 보고, 승리의 보고를 삼가 드리자고 열렬히 호소하였다.

착공식에서는 결의토론이 있었다.

토론자는 수도시민들의 생활향상과 농촌의 변혁적발전을 위해 그토록 품들여 준비해오신 강동온실농장건설을 인민군대에 통채로 맡겨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대건설전역으로 진군해온 인민군장병들의 가슴가슴은 당중앙의 크나큰 신임에 충성과 위훈으로 기어이 보답할 비상한 혁명적열의로 끓어넘치고있다고 말하였다.

강동지구에 나래치게 될 거세찬 전진의 숨결은 자력으로 난국을 타개하며 새시대에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국가와 인민의 백절불굴의 영웅적기상의 뚜렷한 과시로 될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당의 구상과 의도를 빛나게 실천해나갈 굳은 결의를 피력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인민의 리상실현을 위한 중요전구에로 불러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심장에 새겨안고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 수호자로서의 영웅성과 창조본때를 남김없이 떨쳐갈 신념과 의지의 구호들을 우렁차게 웨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강동온실농장건설 착공을 기념하여 몸소 첫삽을 뜨시였다.

인민을 위한 성스러운 려정우에 길이 새겨질 불멸의 화폭이 펼쳐진 착공식장은 장엄한 대건설의 시작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뜻깊은 장소에 몸소 나오시여 대해같은 믿음을 안겨주시는 경



애하는 총비서동지에 대한 열화같은 흠모심과 당에서 맡겨준 과업을 빛나게 관철할 군인건설자들의 전투적열광으로 용암마냥 끓어번지였다.

착공을 알리는 발파의 뢰성이 대지를 뒤흔들고 강동지구에 일어날 자랑찬 변혁상을 예고하며 오색령롱한 축포탄들이 터져올랐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건설에 참가한 부대 주요 지휘관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면서 부대, 구분대들을 창조와 위훈에로 잘 이끌라고, 모든 장병들이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길에서는 오직 전진과 창조만이 있어야 한다는 우리 당의 의지를 가장 충실하게, 확실하게 받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부대의 명예를 걸고 부과된 과업을 결사관철함으로써 당의 믿음에 꼭 보답하라고 전투적으로 고무해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충성과 애국의 군기를 높이 휘날리며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위한 투쟁의 전위에서 영웅적위훈을 떨쳐갈 열의에 넘쳐있는 미더운 군인건설자들에게 오래도록 따뜻이 손저어주시였다.

당의 원대한 농촌혁명구상과 우리 시대의 문명이 응축된 새 《농장도시》의 눈부신 모습을 펼치게 될 강동온실농장건설은 사회주의의 더 밝은 미래를 앞당겨오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백배의 신심을 안겨줄것이다.



인민들과 하신 약속

뜻깊은 2월의 하루하루가 흐르고있다.

공화국의 그 어디를 가보아도 또 누구를 만나보아도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에 넘쳐있다.

공화국인민들은 누구나 위대한 장군님을 아버지라 스스럼없이 부르고 따랐다.

오늘도 천만심장마다에 끓어넘치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은 비범한 령도자, 걸출한 위인이시기전에 온 나라 대가정의 친근한 아버지이시였던 장군님에 대한 이 나라 인민의 꾸밈없이 진실하고 진함없이 열렬한 숭배이고 경모이다.

공화국의 인민들은 지금도 주체 84(1995)년 새해설맞이 공연무대를 생생히 기억하고있다. 공화국의 아이들에게 있어서 위대한 **김일성**주석을 모시고 마음껏 노래부르고 춤추는 설맞이공연무대는 끝없는 행복의 절정이였다. 하지만 이해의 설맞이공연무대는 위대한 어버이를 그리며 터친 아이들의 눈물바다로 하여 온 나라를 울리였다.

그 시각 누구보다도 비통한 마음을 안고계시

던 위대한 장군님의 심정을 무슨 말로다 표현할 수 있으랴.

이제라도 사랑하는 꽃봉오리들을 한품에 안아 그들의 두볼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며 달래주고싶으시였을 장군님이시였다. 하지만 그이께서는 설맞이공연장이 아니라 군인들이 지켜선 다박솔초소에로의 현지시찰의 길에 오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귀여운 아이들에게 주실수 있는 최대의 사랑과 행복이 바로 그길우에 있었다.

오직 웃음만을 안고 자라날 아이들의 밝은 미래에 대한 약속이 그 길우에 있었다.

그때 설맞이공연에 참가했던 평양학생소년궁전의 한 교원은 이렇게 말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다박솔초소에로의 현지시찰소식에 접한 우리의 귀가에는 얘들아, 마음껏 노래를 불러라,마음껏 꿈을 꾸고 희망의 나래를 펼쳐라, 이 아버지가 너희들의 웃음, 너희들의 행복, 너희들의 미래를 총대로 굳건히 지켜줄터이니 한점 그늘없이 명랑하고 씩씩하게 나라의 기둥감들로 자라나라고 약속해주시는 위대한 아버지의 뜨거운 음성이 들려오는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격정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아이들과 심장으로 주고받으신 약속을 지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험난한 선군장정의 길을 걷고 또 걸으시였다.

때로는 어깨로 지쳐내리는 야전차를 떠미시며 이 나라의 높은 령이란 령은 다 넘으시고 때로는 몸소 운전대를 잡으시고 이 땅의 험한 길이란 길은 다 헤치시며 인민들과 후대들의 영원한 행복과 창창한 미래를 위해 쉬임없는 전선길을 이어가신 위대한 어버이. 쉬임없이 이어가시는 그 길에서 인민의 행복을 위한 수많은 사랑의 약속들이 끊임없이 맺어졌고 철저히 지켜졌다.

지금도 수십년전 어느날 평양시의 새로 입사한 일부 주민세대들에 난방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있는 실태와 전후사연을 보고받으시고 그리도 절절히 하시던 그이의 말씀이 되새겨진다.

인민생활을 책임진 어머니인 우리 일군들이 어떻게 인민들에게 그런 거짓말을 할수 있는가? 자식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어머니가 어디에 있는가? …

인민들과 하신 약속을 어길수 없는 법으로, 의무로 여기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하기에 태여날 아기의 이름을 지어달라는 무랍없는 청까지도 심중에 새겨두시였다가 대홍이와 홍단이라고 정을 담아 뜻을 담아 지어주시였고 나라의 천사만사로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인민들과 한 사랑의 약속을 지켜주시려 명절날, 일요일의 휴식조차 잊고 불철주야 로고를 바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생애의 마지막 시기에도 인민행렬차의 기적소리로 이 나라 천만자식들에게 더 큰 행복을 약속해주시였다.

하기에 이 땅 그 어디서나, 그 누구에게서나 스스럼 없이 진정의 목소리로 울려나온것이《아버지장군님》이라는 그 부름이였다.

인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초불처럼 깡그리 불태우신 위대한 장군님의 한생의 뜻과 념원을 받들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위민헌신의 장정을 끝없이 이어가고계신다.

9 년전 4 월 어느날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합숙이 완공되여 준공식을 눈앞에 두고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현지에 나오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고마움의 인사를 거듭 올리는 공장일군들에게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합숙을 새로 건설하여 주겠다고 한것은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이 공장 로동계급과 하신 약속이라고 하시면서 그 약속이 오늘 정확히 집행되였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말씀에서 인민은 새겨안았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여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한생의 념원은 이 땅우에 빛나는 현실로 더욱 활짝 꽃펴날것이며 인민의 앞길에는 오직 행복과 영광만이 있다는것을. /한명구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시며 재중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은 조국의 전체 인민이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 사상과 정신을 높이 받들고 뜻깊은 올해를 우리 공화국의 발전행로에 크게 아로새길 위대한 전환의 해, 변혁의 해로 만들기 위한 전인민적인 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서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탄생 81돐을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로 성대히 경축하고있습니다.

뜻깊은 광명성절의 이 아침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전체 일군들과 재중조선인들은 금수산태양궁전을 우러르며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담아 우리 해외동포들의 영원한 어버이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 최대의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리며 백두의 천출위인이시며 재중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충심으로 되는 가장 열렬한 축원의 인사를 삼가 드립니다.

유서깊은 혁명의 성지에서 백두광명성으로 탄생하시여 항일대전의 총포성을 자장가로 들으시며 성장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평생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드시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자신을 깡그리 바치시여 조국과 인민, 시대와 력사앞에 영구불멸할 업적을 쌓으시였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하실 웅대한 뜻을 품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체계화하시고 더욱 발전풍부화하시여 자주시대의 영원한 지도사상으로 빛을 뿌리게 하시였으며 조국땅우에 가장 공고한 일심단결의 대화원을 펼쳐놓으시였습니다.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서 순간의 휴식도 없이 초강도강행군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면불휴의 로고를 우리는 영원히 잊을수 없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조국을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려세우시고 민족만대의 번영을 위한 강력한 정치군사적, 경제적토대를 마련해놓으시였습니다.

우리 조국이 가장 어려웠던 준엄한 고난의 행군시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독창적인 선군혁명령도로 반제반미대결전을 현명하게 이끄시여 우리 인민의 생명인 주체의 사회주의와 나라의 자주권을 견결히 수호하시였으며 **김일성**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만방에 떨치시였습니다.

사회주의와 정의의 수호자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천리혜안의 예지로 수많은 로작들을 발표하시여 인류에게 사회주의에 대한 필승

의 신심과 보검을 안겨주시고 사회주의《종말》을 떠드는 세계반동들에게 준엄한 철추를 내리시였으며 령활하고 정력적인 대외활동으로 세계사회주의운동의 강화발전과 인류의 자주위업실현에 거대한 공헌을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재중동포들을 한시도 잊지 않으시고 친어버이사랑으로 따뜻이 보살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중국에 사는 우리 해외공민 한사람한사람을 찾아내시여 참다운 애국조직인 재중조선인총련합회를 무어주시고 총련합회가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으며 저희들의 크지 않은 소행도 높이 평가하시여 공화국공민의 최고영예도 안겨주시였습니다.

조국에 대한 그리움속에 사는 우리 재중조선공민들의 마음속 생각도 깊이 헤아리시여 은정어린 조국방문의 길을 열어주시고 죽어서도 조국이 기억하는 영생의 언덕에 세워주신 자애로운 어버이의 따사로운 그 손길은 우리들이 이국땅에서도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한 성원으로 떳떳이 살아갈수 있게 한 자양분이였고 영원한 힘의 원천이였습니다.

진정 한평생을 오로지 나라와 민족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숭고한 헌신으로 수놓아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은 보다 휘황찬란할 조국의 래일과 더불어 길이길이 빛날것입니다.

오늘 위대한 장군님의 성스러운 혁명력사는 희세의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빛나게 이어지고있습니다.

일찌기 위대한 장군님과 함께 준엄한 선군혁명의 길을 헤쳐오시며 인간으로서, 혁명가로서, 령도자로서의 장군님의 비범한 위인적품격을 그대로 이어받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장군님에 대한 열화같은 충성의 마음으로 위민헌신, 멸사복무의 강행군길을 쉬임없이 이어가고계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신 우리 인민을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신성히 받드시며 불면불휴의 려정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인민사랑의 정치로 하여 조국에서는 인민의 생명안전이 국사중의 제일국사로 최우선시되고 나라에 조성되였던 악성전염병사태도 짧은 기간에 종식시켜 세인을 놀래우는 방역대승을 이룩할수 있었으며 평양시와 지방공업도시들, 사회주의농촌마을들마다에 인민의 행복한 보금자리들과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들이 줄지어 일떠서 인민들의 행복한 웃음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천지를 진감하고있습니다.

천리혜안의 예지와 탁월한 령도로 최악의 시련기를 눈부신 전성기로 반전시켜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숙하고도 세련된 령도아래 조국인민들은 일심단결과 자력갱생, 정비보강전략을 틀어쥐고 국가경제발전 5 개년계획완수의 결정적담보를 마련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확대발전시켜 주체의 사회주의건설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과 혁신을 련이어 창조하며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온 행성에 높이 떨치고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자주적인 혁명로선과 혁명방식을 그대로 이어가시며 굴함없는 백두의 공격정신과 사생결단의 희생적인 헌신으로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단호히 쳐갈기시고 그처럼 짧은 기간에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을 이룩하시였으며 가장 적중하고 가장 중대한 시기에 공화국의 핵무력정책을 공식법화하시여 만년대계의 안전담보를 구축하심으로써 동방핵렬강으로서의 우리 국가의 지위를 세계에 명백히 각인시키는 력사적과제를 해결하시였습니다.

지금 국제사회는 상상을 초월하는 온갖 도전과 격난속에서도 공화국의 종합적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시고 전화위복의 기적적승리만을 아로새겨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비범특출한 령도력에 경탄을 금치 못해하면서 원수님을 자주시대의 가장 걸출한 정치지도자로 높이 칭송하고있습니다.

이렇듯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는 저희들에게 공화국의 해외공민된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북돋아주고 조국의 밝은 미래에 대한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고있으며 온 세계를 위인흠모열기로 뜨겁게 끓어번지게 하고있습니다.

만민이 칭송하며 우러러 따르는 절세의 위인을 령도자로 높이 모신 민족의 대행운을 시시각각 체험하고있는 우리 재중조선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 사회주의조국의 품에 안길 영광의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과 보답의 일념으로 가슴불태우고있습니다.

우리들은 사회주의조국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따르는 길에 모든 행복과 창창한 미래가 있다는 철석의 신념을 심장에 새기고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전체 일군들과 재중조선인들을 민족의 찬란한 태양이신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일편단심 따르는 충성의 대오, 애국동포들로 튼튼히 준비시켜나가겠습니다.

우리들은 재중조선인총련합회의 모든 활동을 동포제일주의로 복종지향시키며 뜨거운 혈연의 정으로 재중조선인들을 총련합회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겠습니다.

우리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항일혁명력사와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발자취가 뜨겁게 어려있는 력사의 땅에서 사는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고 길림육문중학교에 높이 모신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정성사업과 동북지역의 항일혁명전적지관리사업을 더 잘하여 재중조선인운동의 전통을 꿋꿋이 이어나가겠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당중앙위원회 제 8 기 제 6 차전원회의에서 가르쳐주신 사상과 의도대로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일군들과 재중조선인들 모두가 사회주의승리를 향하여 강심을 먹고 더욱 분발,분투해나가는 조국인민들의 힘찬 진군길에 보폭을 맞추어 사회주의애국활동을 적극화해나가며 전통적인 조중친선을 귀중히 여기고 두 나라 관계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더 많이 찾아하겠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

원수님의 안녕은 우리 재중조선인들만이 아닌 8 천만 겨레와 세계 진보적인류의 절절한 소원입니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일군들과 전체 재중조선인들의 한결같은 소망을 담아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과 무궁번영을 위하여, 세계자주화위업의 승리적전진을 위하여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이시며 전체 재중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부디 안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재 중 조 선 인 총 련 합 회

주 체 112 (2023)년 2 월 16 일

중국 심양

주체조선의 찬란한 태양이시며 재중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은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아래 내 조국의 방방곡곡에서 날에 날마다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고 온 나라 전체 인민이 당중앙위원회 제 8 기 제 6 차전원회의 확대회의정신을 높이 받들고 새해 진군길에 힘있게 들어선 력사적인 시기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탄생 81 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습니다.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전체 성원들은 다함없는 충성의 한마음을 담아 한평생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우리 조국,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삼가 드립니다.

1942 년 2 월 16 일은 백두산의 기상을 한몸에 안으시고 백두광명성으로 떠오르신 뜻깊은 날입니다.

천재적인 예지와 비범특출한 령도력, 무비의 담력과 배짱으로 우리 민족사에 영원히 아로새겨질 불면불휴의 공적을 쌓아올리시고 우리 해외동포들의 삶을 빛내여주신 위대한 장군님은 천만년 세월이 흘러도 우리모두의 가슴속에 영생하고 계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혁명이 처한 국제적환경과 조건을 가장 명철하게 판단하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다시는 전쟁이라는 참화가 일어나지 않는 더좋은 미래를 물려주시려 그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전인미답의 길, 선군의 길을 걷고 걸으시였습니다.

우리 조국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끝끝내 주체적핵보유국의 당당한 지위에 올라서게 되였으며 오늘날 강자가 약자를 해치는 세계정치흐름속에서도 흔들림없이 승승장구할수있는것은 바로 군사를 제일국사로 내세우는 독창적인 선군정치를 펼쳐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탁월한 선견지명과 한시도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또한 주체혁명위업계승문제의 중요성을 가장 명철하게 통찰하시고 인민에 대한 사랑을 자신의 천품으로 지니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리 혁명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게 함으로써 주체혁명위업계승문제를 가장 빛나게 해결해주시였습니다.

오늘 우리 조국이 몇년동안 지속되는 국제보건위기속에서도 흔들림없이 힘차게 전진해나가고있는것은 전적으로 우리 인민 한사람, 한사람을 자신의 친자식으로 여기시고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물려주신 우리 인민을 위해 인민사랑의 길을 이어가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헌신의 로고가 있기때문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나라의 중대사가 많고 많지만 해외에서 사는 우리해외동포들을 위해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을 채택하여주시고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제 25 차대회에 몸소 사랑의 서한을 보내주시며 주실수있는 모든 사랑을 다 안겨주시였습니다.

우리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전체 성원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을 한시도 잊지 않고 그이의 사랑에 천분의 일,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하기 위하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충성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고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변함없이 조국을 받드는 길에 깨끗한 량심과 의리를 다 바쳐가겠습니다.

오늘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를 안아주고 품어주는 위대한 조국의 품이 있다는것을 가슴에 새기고 언제나 어머니조국의 당당한 해외공민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들의 희망의 등대이고 삶의 터전인 조국은 곧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이며 그이의 안녕은 우리모두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전체 성원들은 우리들에게 더좋은 래일을 안겨주시려 오늘도 인민사랑의 길을 수놓아가시는 주체조선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우리 해외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부디 안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주체 112(2023)년 2 월 16 일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 81돐에 즈음하여

재중총련에서 경축행사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 81 돐에 즈음하여 재중총련에서 경축행사를 진행하였다.

길림육문중학교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과 중국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 심양에 있는 우리 나라 대표부에 모셔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상과 영상작품에 재중조선인총련합회와 재중조선인녀성협회,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재중조선인청년협회,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중남지구협회, 길림지구협회 길림시지부, 재중항일혁명투쟁연고자 황백하가족, 길림지구협회 전 부회장 홍영순가족, 료녕지구협회 사무장 윤영화가족이 꽃바구니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16 일 재중조선인총련합회 경축보고회가 총련합회 회의실에서 진행되였다.

최은복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의장을 비롯한 일군들, 중앙상임위원들,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일군들, 재중조선인청년협회 회원들, 재중조선인녀성협회 회원들, 산하지구협회 회장들, 지부장들, 표성룡 중국 조선족기업가협회 회장단 회장을 비롯한 조선족단체 책임자들과 동포들이 참가하였다.

보고회장 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정중히 모셔져 있었으며 또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탄생 81 돐경축 재중조선인총련합회보고회》라는 글이 게시되여있었다.

보고회는 《**김정일**장군노래》주악으로 시작되였다.

최수봉 제 1 부의장이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경사스러운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일군들과 전체 재중동포들은 끝없는 흠모의 한마음을 담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며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개척하시고 이끌어주신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령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삼가 드리였다.

그는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서 탄생하시여 항일대전의 불길속에서 성장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원대한 뜻을 받드시고 사회주의강국건설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치시였다고 격찬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언제나 해외동포들을 잊지 않으시고 친어버이사랑과 은정으로 따뜻이 보살펴주시였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일군들과 전체 재중동포들은 그 어떤 천지풍파가 휘몰아쳐와도 오직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한분만을 영원히 믿고 따르려는 굳은 결의에 충만되여있다고 언명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제 25 차 전체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력사적인 서한에 제시된 강령적인 과업들을 총련합회사업에 철저히 구현하여 해외공민들을 조직의 두리에 더욱 튼튼히 묶어세우고 모든 사업을 동포제일주의로 지향시키며 조직안에 공민들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 새로운 기풍이 차넘치게 할것이라고 피력하였다.

이어 광명성절경축 예술공연이 있었다.

경축공연회장에는 시종일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 경모의 정으로 차넘치였다.

산하 지구협회와 지부일군들과 공민들은 재중조선인총련합회보고회를 실시간 화상형식으로 시청하였다.















합창《친근한 이름》으로 시작한 공연은 중창;《2월은 봄입니다》, 독창 《끝없는 이 행복 노래부르네》, 무용《3인무》, 시《나의 조국》, 독창《김정일동지께드리는노래》, 가야금독주《그이따라 나아갈 때》, 중창《인민은 일편단심》, 독창 중국노래《잊을수 없는 그날》, 2중창《사회주의는 우리거야》, 기악중주《희망넘친 나의 조국아》, 독창《빛나라 정일봉》, 중창《우리 어머니》, 3중창《우리를 부러워하라》, 시와 합창 《우리 원수님께 영광을》, 《우리의 국기》 종목들로 막을 내리였다.















광명성절을 즐겁게 경축하는 재중동포들



단동에서 광명성절을 맞으며 기념강연회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탄생 81 돐에 즈음한 기념강연회가 2 월 12 일 중국 단동조선공민활동실에서 진행되였다.

기념강연회장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초상화가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기념강연회에는 최수봉제 1 부의장을 비롯한 총련합회일군들, 리순남부의장을 비롯한 경제인련합회회원들, 한성옥회장을 비롯한 청년협회회원들, 녀성협회회원들, 주계숙지부장을 비롯한 단동시지부공민들이 참가하였다.



기념강연회에 앞서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초상화에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재중조선인청년협회, 재중조선인녀성협회, 료녕지구협회 단동시지부명의의 꽃바구니들을 진정하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 조국통일과 세계자주화위업의 승리적전진을 위하여 불멸의 혁명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들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였다.

료녕지구협회부회장 겸 단동시지부 주계숙지부장이《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만년토대를 다져주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다》의 제목으로 기념강연을 하였다.

강연자는 새로 꾸린 단동조선공민활동실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탄생 81 돐에 즈음한 기념강연회를 가지게 된다고 하면서 뜻깊은 광명성절을 맞는 단동시 전체 조선공민들은 절절한 그리움과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담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우러러 최대의 경의와 영생축원의 인사를 삼가 드린다고 하였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생애는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서 빨찌산의 아들로 탄생하시여 인민을 위한 현지지도의 야전렬차에서 순직하시는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우리 조국의 부강발전과 후손만대의 행복, 조국통일과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혁명가의 한생이였으며 력사의 준엄한 초행길을 헤치시며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을 선군의 보검으로 짓부셔버리고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굳건히 수호하시였으며 사회주의조선을 존엄높은 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우신 걸출한 수령, 절세의 애국자의 빛나는 한생이였다고 하면서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





을 높이 칭송하였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그처럼 바쁘신속에서도 언제나 우리 해외동포들을 잊지 않으시고 온갖 육친적사랑과 은정으로 따뜻이 보살펴주시였으며 뜻깊은 태양절과 광명성절을 비롯한 조국의 크고 작은 명절들 때마다 곁으로 불러주시고 영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고 국가행사의 주석단에도 내세워주시였으며 해외동포들의 자그마한 애국적소행도 귀중히 여기시고 국가수훈의 높은 영예도 안겨주시며 우리 해외공민들의 삶을 값높이 빛내여주시였다고 감회깊이 말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위대한 장군님의 념원을 현실로 꽃피우시기 위하여 제국주의자들의 극악하고 전례없는 제재속에서도 과학기술중시사상을 앞세우시고 몇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민족경제발전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주시였으며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에서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과 공화국창건 75돐을 기념하게 되는 뜻깊은 올해에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국면을 열기 위한 전인민적인 투쟁을 더욱 확대발전시켜 5 개 년계획완수의 결정적담보를 구축하는것을 총적방향으로 제시하시고 지난해의 투쟁기세를 더욱 배가하여 올해 목표달성과 새로 제기된 전망과 제수행에 총매진함으로써 올해를 공화국의 발전행로에 크게 아로새길 위대한 전환의 해, 변혁의 해로 만들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원수님의 력사적인 서한에서 총련합회가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나가야할 강력적인 과업들과 방도를 세심히 밝혀주심으로써 총련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부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단동공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린다고 하였다.

강연자는 끝으로 조국을 매일 바라보며 사는 자랑이 큰 단동은 수많은 조선동포들이 살고있으며 총련합회의 경제인련합회, 녀성협회, 청년협회, 료녕지구 단동시지부가 사업하고있는 중요한 지역이라고 하면서 단동에서 살고있는 공민모두가 앞으로도 총련합회에 굳게 뭉쳐 위대한 어머니조국의 부흥발전을 위한 애국의 한길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념원, 강국념원의 숭고한 뜻을 구현해나가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사상과 령도를 충성으로 받드는 길에서 삶의 보람을 찾는 참된 애국적공민이 되자고 열렬히 호소하였다.

기념강연회는 노래 《인민은 일편단심》 합창으로 끝났다.

이날 단동조선공민활동실 개관과 관련한 연회가 진행되였다.

리순남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부의장이 연회사를 하였다.

연회에서는 경제인련합회, 청년협회, 단동시공민들이 준비한 공연들을 무대에 올려 연회장내에는 시종일관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경모의 정이 차넘치였으며 단동시에 공민활동실을 꾸려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충성다할 단동시 공민들의 굳은 결의를 다지는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할빈시지부 광명성절 결의모임

할빈시지부 공민들이 뜻깊은 광명성절을 맞으면서 결의모임을 가지였다. 참가자들은 광명성절을 맞이하는 오늘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의 마음으로 해외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영생을 기원하였다.

모임에서 백웅진지부장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하시는것을 필생의 사명으로 내세우시고 어버이수령님의 가장 친근한 동지, 충직한 후계자가 되시여 혁명과 건설을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대로 줄기차게 전진시키시였으며 조국과 민족, 시대와 력사앞에 불멸의 거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고 격찬하면서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언제나 해외에 있는 우리들을 잊지 않으시고 친어버이의 사랑으로 따뜻이 보살펴주시였으며 장군님의 손길아래 재중조선인들은 이역땅에서도 조선민족의 기개를 잃지 않고 긍지높이 살아올수 있었다고 격찬하면서 할빈은 조국과 멀리 떨어져있어도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그리운 조국에 가있다고 피력하였다.



모임참가자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돐과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을 맞이하는 뜻깊은 올해에 새로운 포부와 커다란 긍지를 안고 충실성과 애국의 전통, 일심단결로 지부의 애족애국운동과 강령적서한관철에서 뚜렷한 실적을 이룩하여야 할 해라고 하면서 모두다 애국애족의 한마음으로 더욱 굳게 뭉쳐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더욱 빛내이고 해외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가는 길에서, 지부공민들을 위하는 사업에서 공민의 본분을 다해나갈 결의들을 다지였다.

목단강지구협회 광명성절 경축모임을 가지였다

목단강지구협회에서 경사스러운 민족최대의 명절인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경축모임을 진행하였다.

목단강지구협회에서 산하조직들인 목단강시지부, 녕안지부, 해림지부공민들을 조직하여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광명성절을 뜻깊게 경축하는 재중조선인총련합회 경축보고회를 화



상시청하였다.

목단강시에 자리잡고 있는 고향집식당에 모여

재중조선인총련합회 경축보고회를 화상시청하는 공민들은 명절의 분위기속에서 서로들 반갑게 인사를 나누면서 기쁨으로 마음이 설레였다.

모임은 목단강시 김영희 공민이 책임지고 진행하였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언제나 해외동포들을 잊지 않으시고 친어버이사랑으로 따뜻이 보살펴주신 은덕을 추억하면서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일군들과 전체 재중동포들은 그 어떤 천지풍파가 휘몰아쳐와도 오직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한분만을 영원히 믿고 따르려는 굳은 결의에 충만되여있다고 보고하는 최수봉제1부의장의 화상을 시청하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평생을 오로지 조국의 안녕과 우리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다 바치신 우리 인민과 해외동포들의 위대한 어버이이시였다는것을 가슴깊이 절감하였다.

총련 본부에서 진행하는 광명성절 경축공연을 화상시청한 공민들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위업을 끗끗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하에 조국의 미래는 휘황찬란할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해외공민된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제 25 차 전체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력사적인 서한에 제시된 강령적인 과업들을 실천하면서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주위에 굳게 뭉쳐 지구협회와 산하지부들을 잘 꾸려나갈 결의들을 다지였다.

이날 공민들은 뜻깊은 경축분위기속에서 축배잔을 들며 즐거운 명절을 보내였다.

영웅적 조선인민군은 필승불패이다

료녕지구협회 회장 권헌

오늘은 항일유격투쟁의 혁명전통과 불굴의 애국정신을 계승한 영광스러운 조선인민군 창건 75 돐 기념일이다.

영용한 조선인민군의 전신인 조선인민혁명군은 무적황군을 자랑하던 강대한 일본제국주의 침략자들과 력량상 대비가 안되여 창해일속이라고 하였지만 피어린 항일무장투쟁에서 짓밟힌 조국의 자유와 인민의 해방을 위하여 일당백의 정신으로 일제 침략자들과 싸워이겨 조국을 해방하고 세계반파쑈전쟁승리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70 여년전 미제침략자들이 일으킨 조선침략전쟁은 비대칭전쟁이였다. 조선과 미국은 령토면적과 인구, 건국력사나 군사력은 천지차였다. 창건되여 2 년밖에 안되는 청소한 인민군대와 미제를 괴수로 하는 15개추종국가와 남조선괴뢰군,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련합하여 달려든 침략자들과의 력량대비는 상상을 초월하여 침략자들은 호언장담하고 세계의 많은 평화애호인민들은 우리를 동정하였다.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김일성**원수님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조국보위전쟁에서 무비의 헌신정신과 용감성을 발휘하여 흉악한 .미제침략군과 그 추종국가무리들을 격멸소탕하였다.

용감한 인민군전사들은 4 척의 어뢰정으로 적중순양함을 까부시고 월미도의 영웅전사들은 4 문의 포로 수백척의 함선과 5 만명의 대병력으로 달려드는 미제침략자들의 인천상륙을 3 일동안이나 저지시켜 세계전쟁사에서 신화를 창조하였다. 조선침략전쟁에서 40만을 넘는 미군을 포함하여 156 만여명의 병력과 수많은 무장장비를 잃은 미제침략자들은 수치스러운 대참패를 당하여 아메리카제국의 강대성의 신화는

여지없이 깨여졌다.

처참한 패배를 인정하고 정전협정에 조인한 .<유엔군사령관> 클라크는 미국력사상 처음으로 승리하지 못하는 휴전협정에 조인하는 영예롭지 못한 최초의 미군사령관이 되였다고 고백하면서 우리 인민앞에 무릎을 꿇었다. 백여차례의 전쟁에서 패한적이 없다던 미국의 상승신화는 풍지박산 나고 미국은 이때로부터 내리막길에 들어서게 되였다.

청소한 우리 조국이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를 괴수로하는 침략세력을 때려부시고 조국과 인민,그리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한것은 인류전쟁사에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군사적기적이며 반만년 민족사에 없었던 조국청사에 길이 빛나는 대사변이였다.

조국해방전쟁승리는 위대한 수령의 령도밑에 굳게 뭉쳐 조국의 독립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결사전에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은 그 어떤 강대한 침략세력도 타승할수 있다는 진리를 세계앞에 보여주었다.

일제의 식민지에서 해방된 우리 인민이 제국주의침략을 반대하는 3 년간의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에서 미제를 타승하고 신성한 조국의 독립을 수호한 이 빛나는 승리는 세계피압박 인민들에게 해방과 독립, 승리의 신심과 희망을 안겨주었다.

조국해방전쟁승리후 수많은 식민지나라 인민들이 영용히 투쟁하여 침략자들을 몰아내고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였다. 그리하여 제국주의식민통치가 모래성처럼 붕괴되고 제국주의패권이 심대한 타격을 받았다.

지난날 지정학적으로 대국들속에 끼워 이리저리 밀리고 망국의 처참한 운명을 감수하여야 하였던 우리 조국은 미국의 패권을 반대하며 70 년간 대결이 지속되는 세계최대열점지역인 조선반도와 주변나라들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고있다. 조선반도주변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가 유지되는것은 그 어떤 강적도 넘보지 못하는 초강력의 지위에 올라선 우리 조국의 강유력한 전쟁억제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 인민군대는 조국보위도 조국건설도 다같이 맡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조국보위만이 아니라 조국의 경제건설에서도 영웅적위훈을 세우고있다. 우리 조국의 수많은 건설기념비들에는 인민군대의 위훈이 새겨져있다.

미국은 세계 도처에 8 백개의 군사기지를 설치하고 침략과 간섭을 일삼으면서 다른 나라들의 안전을 유린하고있다. 남조선에도 6752 명의 미제침략군이 틀어박혀있는 오산기지를 포함하여 83 개의 군사기지에 2.8만명의 침략군을 주둔시켜 항시적으로 조국의 평화를 위협하고 우리 민족의 평화통일을 가로막고있다. 침략과 전쟁으로 숨쉬는 미국은 건국 247 년 동안에 16 년만 전쟁을 하지않았다고 한다. 지금도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부추켜 로씨야와 전쟁을 추동시키고있다.

오늘 조선인민군대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밑에 보병총도 부족하였던 １９５０년대와는 비할바없이 발전하여 핵에는 핵으로 정면전쟁에는 정면전쟁에로 맞설수있는 무비의 절대적힘을 비축하여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침해하는 그 어떤 제국주의침략세력도 일격에 격멸소탕할수 있는 무적필승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되였다.

조선인민군창건 75 돐을 맞이하는 우리 재중동포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혁명무력의 진두에 모시고 그이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인민군대와 인민이 있는한 우리 조국은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을 침해하는 그 어떤 적대세력들의 도전을 단숨에 짓뭉개버리고 사회주의 조국과 인민을 믿음직하게 사수하리라고 굳게 확신하고 있다.

위대한 수령을 높이 모신 우리 조국과 인민군대앞길에는 영원히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 것이다.



2월의 추억



길림시지부 김련원

해마다 2월이 오면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이 나의 가슴을 꽉 채우고있습니다.

엄혹한 시련을 이겨내고 맞이하는 2월이여서 더더욱 그리워지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인민을 위해 바치신 한생의 로고가 더더욱 가슴뜨겁게 안겨오고있습니다.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고 한평생 인민을 위해 온갖 고생을 다하시며 인민의 행복과 기쁨에서 자신의 기쁨을 찾으시고 고생을 락으로 여기시며 이민위천의 길을 걷고 또 걸으신 위대한 장군님.

백두산의 아들로 탄생하시여 백두산의 기상과 넋으로 일찌기 어린 시절부터 인민을 알고 인민의 아들로 성장하시였으며 언제 어디서나 자신도 근로한 인민의 아들이라고 하시며 언제나 인민을 위한 일을 남먼저 찾아하시였습니다.

우리 인민을 수령님의 인민으로, 수령과 인민을 혈연으로 이어주시여 그 어디에도 없는 수령과 인민의 혼연일체를 마련하시고 수령과 인민의 일심단결이라는 강위력한 정치사상 적무기를 마련해주시였습니다.

인민을 위해서는 천만금도 아끼지 않으시고 조국의 방방곡곡을 찾으시며 인민의 행복한 래일을 마련해주시였으며 인민을 위한 일이라면 하늘에 비행기도 띄우시고 바다에서는 군함이 인민의 행복을 실어나르는 지구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인민사랑의 신화들을 창조하시였습니다.

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시여 우리 조국을 정치에서 자주의 나라로 경제에서 자립의 나라로 국방에서 자위의 나라로 일떠세우신 위업을 이룩하시고 사회주의승리의 필연성을 천명하시여 세계사회주의의 건설방향을 밝혀주신 위대한 스승이시였습니다.

련이어 들이닥친 대자연재해와 제국주의자들의 대조선고립압살책동을 분쇄하기 위하여 독창적인 선군정치를 펼치시고 고난의 행군길을 걷고 또 걸으시며 조국수호, 인민사수전을 승리에로 이끄신 우리 장군님이시였습니다.

수령님 키워주신 우리 인민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인민이라고 하시며 인민이란 두 글자를 자신의 가슴속에 꽉 채우시고 인민을 위한 헌신의 길에서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은 영원한 인민의 수령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사랑, 인민중시를 자신의 필생의 신념으로 간직하시고 인민을 위한 애국헌신의 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여 우리 인민은 대를 이어 장군님의 사랑, 은덕을 받아안고있으며 이것으로하여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이 더더욱 사무치게 되는것입니다.

정녕 위대한 장군님은 참다운 인민의 수령이시며 민족의 영웅, 21세기의 위대한 태양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켜주신 우리 조국, 우리 인민의 더 밝고 행복한 래일을 위하여 저는 애국의 한마음을 언제나 간직하고 조국을 위한 충성의 한길을 꿋꿋이 걸어나가겠습니다.

2월의 그리움



장백현지부 량해자지부장

엄동설한이 지나고 따뜻한 봄을 알리는 2 월이 다가왔습니다. 2월은 장백현지부 공민들로 말하면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유서깊은 장백에서 저 멀리 흰눈이 가득히 덮인 백두산을 바라보는 장백현지부 조선해외공민들은 백두산에서 탄생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과 그리움으로 가슴 설레이고 있습니다.

광명성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은 마안산기슭에서 간산봉봉우리에서 백두산을 바라보며 위대한 장군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강건너 조국땅을 바라보며 무비의 담력으로 사회주의조국을 수호하신 위대한 장군님을 그리고있습니다.

항일혈전의 피어린 자취들이 깃들어있는 영광의 이 땅에서 조국을 그리고있습니다.

우리 장군님은 세월의 흐름에도 변함없이 저 하늘에 빛나는 태양처럼 따사롭고 눈부시고 친근하신 모습으로 재중동포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깊이 간직되여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생애의 전 기간 언제나 인민들을 마음속 첫자리에 안으시고 온 넋과 정을 다 바치시였으며 재중동포들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정은 세월이 갈수록 저희들의 기억속에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어버이장군님의 한생은 참으로 시작은 있어도 끝은 없는 은혜로운 사랑과 인덕으로 아로새겨져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하신 위인상은 천추만대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과 더불어 오늘도, 래일도 태양의 모습으로 저희들의 마음속에 영생하고계십니다.

오늘 우리 장백현지부 전체 성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강령적인 서한을 받들고 조국에 대한 열렬한 애국의 한마음 안고 여러가지 사회주의애국운동을 힘차게 벌려나갈 열의에 충만되여 있습니다.

뜻깊은 광명성절을 맞이하는 나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항일투쟁업적이 깃들어있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탄생하신 영광의 땅 백두산 하늘아래에서 사는 해외공민책임자답게 장백현 전체 해외공민들을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정신으로 무장시키고 항일혁명전적지들을 통한 혁명전통교양사업을 보다 참신하게 벌려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대를 이어 빛내여나가며 지부사업을 부단히 강화하여 모든 공민들을 지부두리에 묶어세우고 조국의 륭성발전과 조국통일을 앞당겨나가는 성스러운 애국사업에서 앞장서 나아가겠습니다.



영웅적조선인민군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청년협회 사무국장 리설희

희세의 천출명장의 현명한 령도아래 영광스러운 우리의 혁명무력 조선인민군은 무적필승의 혁명강군으로 우리 조국의 자랑높은 력사에 또 한돐기의 빛나는 년륜을 새기며 조선인민군창건 75 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습니다.

주체 37(1948)년 2 월 8 일 일제의 식민지통치의 후과로 모든것이 파괴되고 경험도, 토대도 없었던 그처럼 어려웠던 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군대건설을 새 조국건설의 3 대과업의 하나로 제시하시고 조국과 민족을 지키고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할수 있는 강력한 정규적혁명무력인 조선인민군창건을 선포하시였습니다.

조선인민군은 창건된 그날로부터 당과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과 애국심을 지니고 원쑤들의 온갖 공격과 침해로부터 우리 조국과 인민을 목숨으로 사수해온 당의 제일보위자, 전위대오입니다.

가렬처절했던 조국해방전쟁시기 인민군용사들은 《당과 수령을 위하여!》 라는 심장의 웨침을 터치며 한몸이 그대로 육탄이 되여 조국을 목숨으로 지키고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으며 전후 복구건설의 그 어려운 나날 원쑤들이 백년이 걸려도 복구하지 못할것이라던 이땅우에 사회주의락원을 보란듯이 일떠세워 다시한번 온 세계에 영웅조선의 기상을 남김없이 과시하였습니다.

조국앞에 어렵고 힘든 과업이 나설 때마다 투쟁의 맨 앞장에는 언제나 우리의 영웅적 인민군장병들이 있었으며 우리 조국의 방방곡곡에 펼쳐진 인민의 지상락원들과 대기념비적 창조물들마다에는 그들의 고귀한 희생정신과 영웅적위훈들이 빛나게 아로새겨져있습니다.

오늘 위대한 대원수님들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현명한 령도아래 우리 인민군장병들은 백전백승의 혁명강군으로 억세게 무장하였으며 우리 조국은 세상 모두가 공인하는 핵강국으로 자기의 존엄과 기상을 만방에 떨치고있습니다.

재중조선인청년협회 전체 성원들은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함이라면 자신들의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치는 조선인민군의 불굴의 투쟁정신을 심장에 새기고 그 어떤 폭풍과 난관이 앞을 막아도 오직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모시고 받드는 해외전사로서 충성의 한길을 변함없이 걸어가겠습니다.



영원한 봄



청년협회 선전국장 김송미

위대한 령장의 숭엄한 모습이 거연히 빛나고있는 우리조국의 하늘가에 2 월의 봄명절, 광명성절이 밝아왔습니다.

추운 겨울을 녹이며 찾아온 따스한 2 월의 봄명절을 이국에서 맞이하는 우리들이지만 그 어느때보다도 세월의 눈비를 다 맞으시며 인민의 행복과 기쁨,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혁명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인민행렬차를 멈추지 않으신 우리 장군님의 강행군길이 더듬어져 눈시울이 젖어듭니다.

돌이켜보면 어버이장군님의 혁명생애는 한평생 타오르는 불길이 되시여 조국과 인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치신 헌신과 복무의 위대한 생애였습니다.

눈보라 사납게 몰아치는 백두산에서 탄생하시여 설한풍 휩쓰는 항일전장과 조국해방전쟁의 불구름을 헤쳐온 유년시절이 그러했고 혁명의 원쑤들의 온갖 도전과 난관을 물리치며 이 땅우에 번영하는 로동당시대를 장엄하게 펼쳐오신 나날들 모두가 그러하였습니다.

혁명은 총대에 의하여 개척되고 전진하며 완성된다, 군대이자 당이고 국가이며 인민이다는 선군의 원리를 밝혀주시고 백두산강군을 기둥으로 로동당시대의 새로운 전성기와 사회주의결사수호전의 승리, 강성대국에로의 대비약을 안아오신 위대한 장군님.

화창하고 행복한 봄을 인민에게 안겨주시려 춥고 험난하고 힘겨운 걸음걸음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신 장군님이시였습니다.

오죽했으면 우리 장군님께서 이 **김정일**은 모든것을 각오하고 선군의 길에 나섰다고, 설사 이 길에서 쓰러진다고 해도 조국과 인민은 잊지 않을것이라고 선군에 바치시는 자신의 진정, 참고 이겨내셔야 하는 고통과 아픔의 극한을 그처럼 절절히 고백하시였겠습니까.

이땅의 추위를 막아주시려, 자신이 걷는 고난의 천리우에 인민의 행복의 만리를 펼쳐주시려 온 겨울 눈보라강행군길에 계신 어버이장군님.

세계 그 어느 나라, 그 어느 정치가가 하루이틀도 아닌 온 겨울을, 한두해도 아닌 온 생애를 이렇듯 인민을 위한 험난한 길을 헤쳐간 사실이 있었습니까.

만민이 우러르는 희세의 위인을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고 투쟁한것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더없는 행운이며 영광이였습니다.

인민때문에 한생 눈비에 젖어 색낡고 보풀진 야전복을 벗어보지 못하신 분, 인민때문에 한생토록 걸으신 찬눈길도 모자라 마지막순간에마저 12 월의 강추위속 야전렬차에서 순직하신 아, 이런 어버이를 이대로는, 이렇게는 못보낸다고 통곡하며 장군님 가시는 영결의 연도를 천겹만겹의 진을 치고 막아나선 장군님의 아들딸들이였습니다.

이 세상 그 어느 력사에서도 볼수 없는 눈물겨운 그리움의 세계, 뜨거운 충정의 세계, 가장 순결한 도덕과 의리의 세계를 돌아보기만해도, 생각만해도 가슴벅차오릅니다.

력사가 알지 못하는 수령영생의 새 장을 펼치시여 인민의 마음속에, 천만대오의 앞길에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태양기를 날려주신 그 숭고한 도덕의리앞에 머리를 숙이고 **김정일**애국주의열풍을 일으키시여 천만의 심장속에 가장 고귀하고 영원한 정신적재부를 안겨주시고 백두산대국의 새로운 승리의 시대, 사회주의문명

국건설의 새 력사를 창조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그 위대한 령도와 불멸의 업적앞에 삼가 경의를 드립니다.

자연의 봄은 한시절이지만 우리 장군님 펼쳐주신 인민의 봄은 영원하기에 우리들은 대를 이어 위대한 수령님의 후손, 위대한 장군님의 전사답게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힘차게 나아가는 길에서 수령님들의 애국념원, 강국념원이 빛나게 실현된 사회주의강국의 새 아침을 반드시 맞이 할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조선인민군 만세!



경제인련합회 회원 김승걸

오늘 우리 조국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조선의 기상과 위용을 힘있게 떨치고있는 력사적시기에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몸소 창건하여주신 조선인민군창건 75 돐을 성대히 맞이하였습니다.

1948 년 2 월 8 일 조선인민군 창건!

이름만 불러봐도 우리 조선인민이 창건된 그날로부터 위대한 당의 령도아래 빛나는 승리의 한길만을 걸어온 75 년의 력사가 눈앞에 어려오고 오늘 우리 조국을 온세계가 인정하는 주체적핵보유국의 당당한 지위에까지 올라설수있는 확고한 초석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 더욱더 간절해집니다.

조선인민군은 창건된 그날로부터 수령,당,대중을 결사옹호보위하는것을 자기의 성스러운 사명으로 간직하고 자기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왔으며 전쟁의 원흉,침략자 미제가 갓 창건된 우리 공화국을 얕보고 전쟁을 일으켰을때에도 거만한 미제의 코대를 꺾어놓고 조선사람의 본때를 보여주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침략과 전쟁을 일삼으며 힘이 약한 나라들을 저들의 식민지로 만들고있는 미제가 정전협정체결이후 70 여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우리 공화국을 감히 건들지 못하고있는것은 바로 자기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조국을 귀중히 여기며 그 조국을 위해서 목숨도 서슴없이 바쳐 싸우는 위대한 조선인민군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세계정치흐름을 가장 현명하게 판단하시고 힘이 없으면 우리도 언젠가는 제국주의자들의 노예로 전락되고 우리 인민이 피로써 쟁취한 사회주의조국도 지켜낼수 없다고 하시면서 나라의 국방력강화에 계속 선차적힘을 집중하고 계십니다.

저는 해외에서 살아도 우리 공화국의 군사적힘을 힘있게 과시하는 여러가지 대륙간탄도미싸일시험발사소식에 접할때마다 지난 시기 자기를 지킬 군사적힘이 없어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되여 지구상에서 빛을 잃어가던 조국이 오늘은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미국과도 당당히 맞서 싸우는 강대한 나라라고 생각하니 힘이 절로 나고 이러한 주체조선의 해외공민된 긍지와 자부심이 날로 더욱 뿌듯해집니다.

저는 앞으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리키는 길을 따라 승리의 한길로 힘차게 나아가는 조국인민들과 힘을 합쳐 조국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이땅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성스러운 애국투쟁에서 조선민족의 한성원으로서의 자기의 본분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대덕산과 더불어 빛나는 구호

불패의 혁명강군의 기상을 안고 질풍같이 내달리는 우리 공화국의 천리방선초소마다에 일당백의 기상이 힘있게 나래치고있다.

일당백으로 다져지고 굳세여진 씩씩하고 름름한 인민군장병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인민들의 가슴속에는 인민군대앞에《일당백》의 구호를 제시하시여 우리 혁명무력을 무적필승의 전투대오로 억세게 키우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이 뜨겁게 되새겨진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민군대에 새롭게 제시하신 〈일당백〉의 구호는 우리 인민군대를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강화할수 있게 하는 전투적 구호입니다.》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건군사에 새로운 장



을 펼친 력사의 그날로부터 어느덧 60 년의 년륜이 새겨졌다.

하지만 지금도 대덕산초소를 그려보느라면 생눈길 헤치시며 야외감시소에 오르시여 저멀리 높고낮은 산발들과 적진을 굽어보시던 절세위인들의 근엄하신 모습이 어려오고 조용히 귀기울이면 인민군대의 구호는 일당백이라고 하시며 그 본질을 밝혀주시던 천출명장들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들려오는듯싶다.

《일당백》구호의 고향 대덕산!

황해북도 장풍군과 개성시경계에 위치하고 큰 덕모양의 산이라는데서 유래된 대덕산은 우리 인민들이 잊지 못하는 산이다.

돌이켜보면 위대한 수령님께서 대덕산초소를 찾으시여 《일당백》의 구호를 제시하시던 당시 정세는 매우 긴장하였다.

이러한 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군대를 필승불패의 자위적강군으로 강화하는데 선차적인 의의를 부여하시고 최전연에 자리잡은 부대들을 찾고 또 찾으시였다.

잊지 못할 주체 52(1963)년 2 월 6 일,

꿈결에도 뵙고싶던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맞이하게 된 대덕산초소는 끝없는 감격과 환희로 세차게 설레이였다.

력사의 그날 수령님께서는 름름하고 씩씩한 군인들의 손도 다정히 잡아주시고 병실과 눈덮

인 고지의 진지들도 일일이 돌아보시며 지휘관들이 미처 생각지 못한 문제들까지도 하나하나 일깨워주시였다.

조국의 천리방선을 지켜선 총쥔 군인들을 펄펄 나는 싸움군으로 튼튼히 준비시킬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옛날부터 싸움잘하는 장수를 《일당백》이라고 말하였는데 이것은 하나가 백을 당한다는 말이다. 유일하게 옳은 방침은 지금 있는 군사인원을 가지고 진지를 더욱 강화하고 군사훈련을 더 잘하고 전체 군인들을 혁명정신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서 하나가 백을 담당하도록 하는것이다. 인민군대의 구호는 《일당백》이다. …

한 세대에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신 강철의 령장의 담력과 배짱이 그대로 어려있는 《일당백》구호,

새기면 새길수록 온몸에 무적의 용맹이 부쩍부쩍 솟구쳐오르게 하는 힘있는 이 구호에는 우리 인민군대를 이 세상에서 가장 위력한 불패의 혁명강군으로 키우시려는 우리 수령님의 높으신 뜻이 뜨겁게 어려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건군업적이 집약되여있는 무적강군의 영원한 승리의 기치인《일당백》구호는 어버이장군님께서 계시여 군인들의 심장속에 불멸의 기치로 더욱 굳건히 자리잡게 되였다.

우리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의 군건설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우리식의 독창적인 군건설로선과 방침을 제시하시고 인민군대를 불패의 혁명강군으로 키우시기 위하여 정력적인 로고를 다 바치신 우리 장군님,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대덕산초소를 찾으시였던 잊지 못할 그날을 추억하시며 《일당백》구호는 인민군대가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백승의 기치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천출위인의 기상과 넋을 한몸에 지니시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군건설사상과 업적을 대를 이어 옹호고수하고 빛내여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여 우리 인민군대는 오늘 그 어떤 원쑤도 일격에 쳐물리칠수 있는 무적의 강군으로 더욱 강화발전되였다.

우리 군인들에게 진함없는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시고 바람세차고 포연자욱한 훈련장을 찾고 또 찾으시며 인민군장병들에게 백승의 지략과 용맹을 안겨주시여 펄펄 나는 일당백의 용사들로 키워주시는 우리의 원수님.

정녕 대대로 절세위인들의 슬하에서 일당백의 슬기와 용맹을 다져온 우리 인민군대는 앞으로도 불패의 혁명강군의 위용을 온 세상에 떨쳐갈것이다.



련포온실농장의 첫물남새 함흥시민들에게 공급

나라의 중요한 공업도시, 과학도시인 함흥시와 함경남도인민들의 남새보장문제에 깊은 관심을 돌리는 어머니당의 은정속에 동해기슭에 훌륭히 건설된 련포온실농장에서 첫물남새를 수

확하였다.

련포온실농장을 우리 나라 온실농장의 새로운 표준으로 희한하게 일떠세워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빛내여갈 일념안고 도의 일군들은 남새생산과 경영관리의 과학화수준을 보다 높이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조직전개하였다.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을 맞으며 련포온실농장에서 수확한 신선한 남새들이 함흥시민들에게 공급되였다.

푸르싱싱한 갖가지 남새를 받아안은 함흥시의 근로자들은 세상에 없는 온실바다를 펼쳐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덕이 고마와 북받치는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련포온실농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뜻깊은 올해를 남새생산성과로 빛내이기 위해 작물의 가지수를 다양화하고 생산성이 높은 품종들을 널리 재배하면서 흐뭇한 작황을 안아오고있다.

제11차 광명성절료리기술경연 진행



제 11 차 광명성절료리기술경연이 12 일부터 14 일까지 평양면옥에서 진행되였다.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2월명절을 맞으며 진행된 이번 경연에는 성, 중앙기관, 평양시안의 급양 및 대외봉사단위들에서 선발된 료리사, 접대원들과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경연에서는 여러가지 료리와 음료를 직접 만들어내놓는 기술경연과 함께 자기 단위의 특색을 보여주는 료리전시회, 우수한 료리사들의 시범출연이 있었다.

경연참가자들은 음식문화를 발전시킬데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급양봉사활동을 활발히 벌리는 나날에 련마해온 료리기술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류경관, 창광종합식당, 칠성각, 보통강려관, 대동강구역종합식당 등의 료리사, 접대원들은 돼지갈비찜, 과일즙친메기튀기, 버섯완자찜, 양배추볶음, 만두국을 비롯하여 우리 인민들의 식생활에 널리 리용할수 있는 료리들과 수정과, 단나무열매차와 같은 건강에 유익하고 가정에서도 손쉽게 만들수 있는 음료들을 특색있게 만들어내놓았다.

전시회에서는 은정차집과 청류관 등에서 출품한 쑥떡, 버섯랭찜, 남새지짐, 닭고기버섯찜 등의 료리들이 영양가가 높고 맛과 향기가 독특한것으로 하여 참가자들과 참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옥류관, 평양고려호텔, 대성구역종합식당을 비롯한 여러 단위에서 선발된 우수한 료리사들의 시범출연도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였다.

14 일에 진행된 폐막식에는 내각부총리 리성학동지, 인민봉사지도국장 리용민동지, 관계부문 일군들, 료리사, 접대원들이 참가하였다.

경연에서 우수하게 평가된 단체와 출연자들에게 상장과 메달, 증서가 수여되였다.

한편 해주의 옥계각, 청진의 경성단고기집을 비롯한 각 도의 이름있는 식당들에서도 근로자들의 관심속에 료리기술경연들이 진행되였다.









사회주의 우리 생활, 우리 문화를 제일로 사랑하는 인민의 긍지 각지에서 정월대보름 즐겁게 맞이

사랑과 정으로 아름다운 사회주의생활과 더불어 우리 식의 멋과 향기가 나날이 꽃펴나는 내 조국에 민속명절 정월대보름의 정서가 한껏 넘쳐났다.

우리의것을 귀중히 여기고 빛내이며 래일의 행복을 가꾸어가는 무한한 자긍심, 애국의 열정을 안고 온 나라 인민이 5 일 명절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락랑박물관을 찾은 수도시민들은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도 절세위인의 손길아래서 더욱 빛나게 됨을 가슴뜨겁게 절감하면서 다채로운 민속놀이로 즐거운 한때를 보내였다.

주체성과 민족성을 귀중히 여기고 아름답게 꽃피워가는 내 조국이 제일이라는 확신을 안겨주며 평양대극장에서 피바다가극단 예술인들의 음악무용소품공연이, 평양교예극장에서 국립교예단 예술인들의 종합교예공연이 진행되였다.

녀성민요독창 《신고산타령》, 남성독창 《토장의 노래》, 5 인무 《장고춤》, 체력교예 《그네널철봉》, 희극교예 《신기한 함》 등 민족적정서와 향취가 넘치는 노래들과 무용소품들, 특색있고 박력있는 교예종목들은 관람자들의 경탄을 자아냈다.

당의 은정속에 마련된 문수물놀이장과 인민야외빙상장을 비롯한 문화휴식터들은 희열과 랑만에 넘친 근로자들로 흥성이였다.

집집마다에서는 가정주부들이 준비한 오곡밥, 9 가지 마른나물반찬을 비롯한 여러가지 민족음식들과 료리들을 맛있게 들고 장기, 윷놀이를 하면서 기쁨을 나누는 사람들의 행복넘친 웃음소리가 흘러넘쳤다.

어둠이 깃들자 모란봉, 련광정, 경루동, 송화거리 등 수도 평양과 어머니당의 사랑속에 일떠선 농촌의 새 마을을 비롯한 전국각지에 달맞이풍경이 펼쳐졌다.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이 현실로 꽃펴나는 사회주의 우리 집을 세상에 보란듯이 꾸려갈 애국의 열의로 가슴끓이며 사람들은 보름달을 기쁨속에 바라보았다.

정월대보름명절을 즐겁게 보내며 온 나라 인민들은 사회주의대가정의 자애로운 어버이가 되시여 운명과 미래를 따뜻이 보살피고 지켜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안녕을 삼가 축원하였으며 조국의 부강번영과 가정의 행복을 소원하였다.

우리민족한마당

womenminzudajiating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

유럽대륙전체를 엄중한 전쟁위험에 로출시키고 크고작은 우려들을 산생시켜온 미국의 책동이 이제는 더욱 위험계선을 넘어서고있다.

수많은 군사장비를 우크라이나에 밀어넣으며 불안정한 세계적사건의 지속을 부추기는데 《특공》을 세운 미국이 최근에는 저들의 주력땅크까지 제공한다는것을 공식 발표함으로써 반로씨야대결립장을 보다 명백히 하였다.

여기에는 로씨야를 파멸시키기 위한 대리전쟁을 더욱 확대하여 저들의 패권적목적을 달성하려는 미국의 흉심이 깔려있다.

미국만 아니라면 세계는 지금 보다 더 밝고 안전하고 평온한 세상이 될것이다.

미국이야말로 로씨야의 전략적안전에 심각한 위협과 도전을 조성하고 지역정세를 오늘과 같은 험악한 지경에로 몰아넣고있는 장본인이다.

나는 우크라이나에 지상공격용전투장비들을 밀어넣음으로써 전쟁상황을 계단식으로 확대하고있는 미국의 처사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로씨야의 안전우려를 전면무시하고 우크라이나에 천문학적액수의 군사장비들을 넘겨주면서 세계의 평화와 지역의 안전을 파괴하고있는 미국과 서방나라들은 주권국가들의 자위권에 대하여 시비할 자격이나 그 어떤 명분도 없다.

지금 미국은 서방나라들은 물론 자기의 특등앞잡이들의 군사잠재력까지 반로씨야전선에 동원하려고 획책하고있다.

우크라이나전장은 결코 20 년전 미국의 주력땅크들이 활개치던 중동의 사막이 아니다.

나는 미국과 서방이 자랑하는 그 어떤 무장장비도 영웅적인 로씨야군대와 인민의 불굴의 전투정신과 위력앞에 모조리 불타버려 파철더미가 될것이라고 믿어의심치 않는다.

제국주의련합세력이 아무리 발악하여도 높은 애국심과 완강성,강의한 정신력을 지닌 로씨야군대와 인민의 영웅적기개를 절대로 꺾지 못할것이다.

우리는 국가의 존엄과 명예,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싸움에 나선 로씨야군대와 인민과 언제나 한전호에 서있을것이다.

주체 112(2023)년 1 월 27 일

평 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담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무분별한 군사적대결망동과 적대행위로 하여 조선반도와 지역의 군사정치정세가 극도의 위험계선에로 치닫고있다.

지금 미국은 또다시 온갖 랑설을 퍼뜨리며 우리 국가를 《악마화》하기 위해 책동하는 한편 추종세력들과 함께 《인권》,제재,군사 등 각 방면에서 전면적인 대조선압박공세를 강화하고있다.

특히 미국은 2월부터 남조선과 핵무기사용을 가상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과 력대 최대규모의 야외기동실탄사격훈련을 비롯하여 규모와 범위가 대폭 확대된 련합훈련들을 련이어 강행하는것으로 우리와의 전면대결의 도화선에 불을 지피려 하고있다.

1 월 31 일 남조선지역을 행각한 미국방장관이 우리 국가에 대한 핵무기사용을 꺼리낌없이 떠벌이고 5 세대스텔스전투기들과 핵항공모함과 같은 전략자산들을 더 많이 전개할것이라고 공언한것은 조선반도지역을 하나의 거대한 전쟁화약고로,더욱 위태한 전쟁지역으로 변화시키는 결과만을 빚게 하는 미국의 위험천만한 기도의 집중적인 표현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날로 우심해지고있는 미국의 악독한 대조선적대시정책과 위험한 군사적준동에 대처하여 우리의 대미원칙적립장을 다시금 명백히 밝힌다.

첫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미국의 그 어떤 군사적기도에도 《핵에는 핵으로,정면대결에는 정면대결로!》라는 원칙에 따라 초강력대응할것이다.

우리가《확장억제력제공》과《동맹강화》의 간판밑에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있는 미국에 대해 일일이 반응하지 않는다고 하여 결코 이를 외면하거나 류념하지 않는다는것이 아니다.

우리는 미국의 저의를 간파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기도하고있는 그 어떤 단기적 및 장기적인 각본에도 대처할수 있는 명백한 대응전략을 가지고있으며 가장 압도적인 핵력량으로 현재와 미래의 잠재적인 도전들을 강력히 통제관리해나갈것이다.

미국이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에 전략자산들을 계속 들이미는 경우 우리는 그 성격에 따라 어김없이 해당한 견제활동을 더욱 명백하게 할것이다.

둘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미국이 적대시정책과 대결로선을 추구하는한 미국과의 그 어떤 접촉과 대화에도 흥미가 없다.

미국은 가장 극악무도한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추구하면서 뻔뻔스럽게도 대조선적대의도가 없다는 기만적인 간판을 내들고 우리와의 대화를 제창하며 시간을 얻어보려고 꾀하고있다.

조선반도와 지역에서의 정세격화는 전적으로 제재와 군사적압박으로 우리에게 일방적무장해제를 강요하고 동맹세력들의 군사적팽창을 추구하는 미국의 적대시정책에 의하여 초래된것이다.

지난 수십년간의 조미대결력사는 우리 국가의 《종말》을 국정목표로 삼고 무장해제와 제도붕괴를 실현해보려고 망상하는 미제국주의와는 오직 힘으로 상대해야만 한다는것을 새겨주고있다.

우리에 대한 미국의 위협수위가 보다 위험하게 진화될수록 그에 정비례하여 미국으로 되돌아가는 후폭풍도 더욱 강력하게 변화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적대시정책과 군사적위협이 근원적으로 깨끗이 제거될 때까지 강력한 억제력에 의거하여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책임적으로 수호해나갈것이다.

주체 112(2023)년 2 월 2 일
평 양



미국의 패배를 가르쳐주는 《성실한 강사》

1968년 1월 23일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가 우리 령해에 불법침입하여 군사정탐활동을 감행하다가 조선인민군 해군의 자위적조치에 의하여 단 14분만에 나포되고 함장이하 80여명의 승무원이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당시 미국은 《이 함선은 공민전쟁이래 바다에서 랍치된 첫 함선이다. 보복해야 한다.》, 《몽둥이를 휘둘러서라도 〈푸에블로〉호를 빼앗아와야 한다.》고 하면서 핵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호를 비롯한 기동타격부대를 조선동해로 출동시키는 등 조선반도정세를 첨예한 전쟁접경에로 몰아갔다.

《푸에블로》호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핵무기사용도 불사하겠다고 우리 나라를 위협해나섰다.

그러나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대답할것이라는 우리 공화국의 단호한 대응에 기겁한 미국은 정탐행위를 한 범죄를 인정하고 다시는 어떠한 미국함선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령해를 침범하지 않도록 할것을 확고히 담보한다는 사죄문에 수표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진정 《푸에블로》호사건은 1950년대의 영웅조선의 전승을 더욱 부각시켜주고 조미대결전에서 승리는 언제나 우리의것이며 패배는 항상 미국의것이라는 법칙적인 두 전통이 더욱 줄기차게 흐르게 한 력사적인 계기점으로 되였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세계언론들과 여러 나라의 정계, 사회계인사들은 오늘도 《푸에블로》호사건을 놓고 아메리카제국의 《강대성》을 야유조소하고있으며 그 교훈을 망각하지 말것을 미국에 경고하고있다.

현재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는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이 자리잡고있는 평양의 보통강반에 실물그대로 보존전시되여 내외의 참관자들에게 주체조선의 빛나는 승리와 미국의 수치스러운 패배를 웅변적으로 가르쳐주는 《성실한 강사》노릇을 하고있다.

재일동포들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광명성절을 뜻깊게 경축

재일동포들이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광명성절을 뜻깊게 경축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에 15 일 총련중앙일군들, 중앙단체 일군들이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꽃바구니의 댕기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의 글발이 모셔져있었다.

참가자들은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시며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영생을 기원하여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탄생 81 돐경축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가 15 일 일본 도꾜에 있는 총련중앙회관에서 진행되였다.

대회에는 허종만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과 박구호제 1 부의장 겸 조직국장, 남승우부의장, 배진구부의장 겸 사무총국장, 조일연부의장, 송근학부의장 겸 교육국장, 서충언부의장 겸 국제통일국장, 강추련부의장 겸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 리명유 총련중앙감사위원회 위원장, 총련중앙 상임위원들, 고문들, 재일조선인력사연구소 소장, 총련본부위원장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주악되였다.

박구호제1부의장 겸 조직국장이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조국인민들이 2023 년을 공화국의 발전행로에 크게 아로새겨질 위대한 전환의 해, 변혁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총진군에 과감히 떨쳐나선 벅찬 시기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탄생 81 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뜻깊은 광명성절을 맞으며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애국애민의 의지로 온몸을 깡그리 불태우시며 고귀한 한생의 모든것을 나라일에 바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불멸의 업적과 로고에 대하여, 총련과 재일동포들에게 돌려주신 사랑과 배려에 대하여 다시금 가슴뜨겁게 되새기게 된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은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인민의 꿈과 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낮과 밤, 삼복철과 엄동설한을 모르시는 초강도강행군으로 온 나라에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 최첨단돌파의 열풍을 지펴주시였으며 경제강국, 문명강국건설의 설계도를 펼치시고 조국번영의 만년초석을 닦으신 사회주의건설의 영재이시며 절세의 애국자이시라고 격찬하였다.

한평생 어버이장군님께서 혁명령도의 전기간 인민을 위한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고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인민행렬차의 기적소리를 높이 울리신 고귀한 위민헌신의 력사를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유산인 총련과 재일동포들을 지켜주시고 새 세기 재일조선인운동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주고계시는데 대하여 칭송하였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주체위업을 진두지휘하시는 그토록 분망하신 속에서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올해 새해축전을 보내주시여 총련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며 재일동포들모두에게 친어버이은총을 베풀어주시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총련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난해 총련 제 25 차 전체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강령적 서한을 관철하여 총련부흥의 새시대를 반드시 열어나갈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전환의 해, 변혁의 해인 올해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애족애국운동을 더욱 기운차게 벌려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였다.

한편 총련중앙 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이 15 일 재일조선학생소년들의 2023 년 설맞이공연록화편집물 《조국의 사랑은 따사로워라》를 시청하였다.



《희망의 나래, 우리의 노래》

-오사까조선중고급학교창립 70 돐기념공연소식-

지난 1 월 29 일 오사까조선중고급학교 학생들과 교직원들, 졸업생들과 지역동포 400 여명이 출연한 오사까조선중고급학교창립 70 돐기념공연 《희망의 나래, 우리의 노래》가 히가시오사까시에서 진행되였다.

총련일군들과 동포들, 학생들, 일본시민 1 800 여명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제1부 《사랑과 긍지로 새겨온 70 년》과 제 2 부 《희망안고 나래쳐라 우리의 미래로》로 나뉘여 진행된 공연에서는 관현악합주 《우리의 국기》, 합창과 무용 《얼씨구 좋네 오사까중고》, 영상과 설화 《사랑속에 걸어온 70 년》, 녀성중창 《조국의 사랑은 따사로워라》, 농악 《경축》, 무용 《우리 마당춤》, 결의시 《희망안고 나래치자 우리의 미래로》, 중급부 학생들과 2 세, 3 세, 4 세 대표들이 함께 출연한 합창시 《우리 희망, 우리 미래》를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이 펼쳐졌다.

제2부 종목들에 담겨진 뜻깊은 내용들과 출연자들의 훌륭한 형상으로 하여 관람자들은 공연종목이 바뀔때마다 그칠줄 모르는 박수와 환호를 올리며 공연장소를 뜨겁게 달구었다.

공연에서 깊은 감명을 받은 관람자들은 저저마다 자기들의 격동된 심정을 터놓았다.

《70 년의 력사를 꿋꿋이 이어 학교를 지켜나가려는 학생들의 마음이 안겨와 가슴이 뜨거워졌다.》, 《민족교육이 있기에 동포사회가 있다는것을 새삼스럽게 실감했다.》, 《역시 우리 학교가 제일이고 민족교육이 제일이다. 아이가 생기면 오사까조선중고급학교에 보내고싶다.》, 《학교의 자랑찬 력사가 계속 이어지도록 할수 있는 일을 다하겠다.》, 《아이들을 떳떳이, 훌륭히 키워주는 민족교육의 우월성, 오사까민족교육의 앞날에 대한 자신심을 간직할수 있었다.》 …

공연은 조국의 손길아래 학교가 걸어온 70 년의 자랑찬 력사를 더듬어보며 래일의 밝은 희망과 미래를 안고 재일조선인운동의 생명선 민족교육의 뜨거운 명맥을 영원히 고수함으로써 총련부흥의 새로운 전성기를 개척할 학생들과 동포들의 굳센 의지와 신념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남조선에서 공안사건조작놀음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진행

남조선언론들이 전한데 의하면 시민사회단체, 로동운동단체, 종교단체 등 각계각층이 괴뢰정보원의 공안사건조작놀음을 규탄하는 《정권위기국면전환용 공안탄압저지, 보안법페지 대책위원회》를 내오고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참가자들은 《윤석열정권과 정보원의 공안몰이가 극에 달하고있다.》, 《민주로총과 농민회총련맹 등 지역과 단체를 가리지 않고 보안법의 칼날을 들이대고있다.》고 하면서 《정보원과 공안기관은 피의사실, 허위사실류포에 열을 올리고 언론에서는 이를 가공하여 기사를 쏟아내고있다.》고 폭로하였다.

이어 윤석열역적패당이 《보안법》의 칼날을 휘두르는 리유에 대해 《각종 참사와 정부의 무능, 강제징용문제굴욕해결, 민생파탄과 경제위기, 련이은 외교참사, 조선반도전쟁위기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막아야 하기때문이다.》, 《정권의 위기와 국면전환을 위해 윤석열정권은 공안탄압을 자행하고있다.》고 까밝혔다.

참가자들은 《거짓과 기만으로 가득찬 공안탄압은 더 큰 항쟁과 저항을 불러올뿐이다.》, 《정권의 위기와 실정을 가리우고 국면전환용 공안탄압을 자행하는 윤석열정권을 반드시 심판할것》이라고 자신들의 투쟁의지를 밝혔다.

남조선청년단체 윤석열역적패당의 대결정책을 페기시켜야 한다고 주장

남조선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 지난 2 일 《6. 15 청학본부(6. 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가 23 기 총회를 열고 윤석열역적패당의 반민족적대결망동을 규탄하며 강력한 반전평화투쟁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단체는 결의문에서 《새해가 밝았지만 조선반도는 전쟁의 먹구름이 가득하다.》고 하면서 《후보시절부터 대북적대의식을 감추지 않던 윤석열은 <한미동맹>을 맹신한채 줄곧 대북대결정책으로 조선반도를 전쟁으로 몰아가고있다.》고 비난하였다.

이어 《<압도적인 승리>를 운운하며 대북적대와 대결의 광기에 휩싸인 윤석열정부는 공안정국을 조성해 간첩조작과 종북몰이로 폭주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있다.》,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력대 최대규모의 <한>미련합군사훈련을 시작으로 <한>미일군사협력아래 진행될 각종 군사훈련과 무기증강은 조선반도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내몰것이다.》고 단죄하였다.

단체는 지금이야말로 청년학생이 나설 때라고 하면서 《반전평화투쟁에 하나같이 떨쳐나서 윤석열정부의 대북대결정책을 페기시키자.》고 호소하였다.

시민단체들 《정보원》의 반인권적책동을 규탄하는 대회 진행

남조선언론들이 전한데 의하면 시민사회단체, 로동운동단체 등 각계각층이 《정보원》앞에서 《보안법페지, 정보원해체, 정권위기탈출용 간첩조작공안몰이 정보원 규탄대회》를 진행하였다.

참가자들은 《정보원》이 진보적인 활동가들을 구속한데 대해 《정보원이 그동안 수많은 간첩조작을 해왔다. 이번 사건 또한 정보원이 외곡해 조작하고있다.》, 《무고한 사람들을 재판을 받기도전에 간첩으로 만들고있다.》고 폭로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 정권은 자신들의 리익을 위해 무슨 일이든 할수 있을것이라는 생각에 빠져있는 력대최악의 정권이다.》, 《악명높은 정보원, 극악한 정권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있

다.》, 《정보원은 불법인치를 강행하고 신체적, 정신적고문을 통해 허위자백을 강요했던 독재로 돌아가고있다.》고 단죄하였다.

참가자들은 《반인권적수사를 당장 중단시켜야 한다. 보안법은 이미 국제적으로 악명높은 반인권악법으로 락인된 상태이다.》, 《당당히 맞서 싸울것이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겠다.》, 《윤석열정권을 심판할것이다. 겁을 먹지 말고 힘차게 투쟁하자!》고 웨치면서 투쟁기세를 올리였다.

전쟁위기를 몰아오는 윤석열 역적패당을 강력히 규탄

남조선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 6. 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성명을 통해 윤석열역적패당의 무분별한 군사적대결망동을 규탄하며 《전쟁위기를 부르는 대북적대, <한>미련합훈련을 중단하라!》고 요구하였다.

단체는 성명에서 올해에 들어와 벌써 두차례에 걸쳐 련합공중훈련이 벌어졌다고 하면서 《미국과 윤석열정부는 조선반도에서 류례가 없을 정도로 강도높은 군사적압박과 위협을 자행하고있다.》고 폭로하였다.

이어 《이번 <한>미련합공중연습은 위기의 전주곡이다.》, 《다가오는 3 월에는 북에 대한 선제타격과 지도부제거를 위한 작전계획을 수행하는 대규모의 <한>미련합군사훈련이 예정되여있다.》고 하면서 《북에 대한 전면전을 상정한 훈련이 진행된다면 북이 그에 대응하는 군사적조치들을 리행할수밖에 없어 전쟁위기가 순식간에 닥쳐올것이다.》, 《뻔히 조성될 위기를 내다보면서도 불속으로 뛰여드는것이 현명한것인지 묻지 않을수 없다.》고 단죄하였다.

단체는 《북을 적으로 삼으며 첫발을 뗀 남북관계가 좋을리 만무하다.》, 《군사적대결을 통한 압박으로 더 큰 위기를 불러올뿐이다.》고 경고하면서 《윤석열정부와 미국은 지금 즉시 모든 훈련계획을 취소하고 일체의 적대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요구하였다.

식민지노복의 굴종사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 들어와 윤석열역적패당은 《남조선미국호상방위조약》체결 70 년을 계기로 《남조선미국동맹관계설정을 기념하고 찬미하며 승화시킨다.》고 하면서 각종 친미광대극을 벌려놓으려고 책동하고있다.

괴뢰외교부와 국방부, 보훈처 등 각 행정부처들과 《국회》가 저마다 나서서 그 무슨 《기념마크》제작, 도서발간, 《기념식》, 《기념결의안》 등을 통해 《동맹관계의 굳건함》을 과시한다고 떠들어대는가 하면 《한미우호협회》를 비롯한 친미보수단체들까지 덩달아 모임이요, 《추모의 벽》이요 하면서 설쳐대고있다.

남조선미국《동맹》조작 70 년을 계기로 윤석열역적패당이 벌려놓으려는 모든 《기념행사》들, 그 준비과정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친미사대굴종에 쩌들대로 쩌든 민족반역무리들의 추악한 광대극에 지나지 않는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남조선미국《동맹》관계란 상전과 주구사이의 주종관계, 예속과 굴종의 불평등관계이며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패권전략, 침략정책실현을 위한 《전쟁동맹》관계이다. 다시말하여《동맹》이라는 허울밑에 수직관계로 이루어진 식민지지배자와 그 현지하수인사이, 상전과 주구사이의 침략적, 굴욕적결탁의 산물이라는데 남조선미국《동맹》관계의 본질이 있다.

남조선미국《동맹》관계는 침략과 전쟁, 략탈

과 살륙, 파괴로 얼룩진 관계이다.

지난 70 년간 《동맹》의 간판밑에 미국이 끌어들이고있는 각종 핵전략자산, 침략전쟁수단들과 매일과 같이 벌어지고있는 형형색색의 전쟁연습소동들에 의해 조선반도정세는 지속적인 불안정, 항시적인 전쟁위기심화의 련속과정속에 있다.

남조선미국《동맹》관계는 온갖 범죄로 가득찬 관계이다.

남조선에 미강점군이 군화발을 들여놓은 때로부터 지난 70 년간 얼마나 많은 살륙과 강탈, 강간범죄들이 산생되였는가. 오늘 이 시각도 남조선미국《동맹》의 미명하에, 보호밑에 남조선강점 미군은 남조선인민들을 상대로 치떨리는 범죄행위들을 거리낌없이 저지르고있다.

정치, 군사, 경제,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예속과 굴욕이 심화되여온 치욕의 력사, 일제식민지통치를 이은 새로운 식민지노예의 력사, 남조선인민들 누구나 치를 떠는 원한의 력사가 바로 남조선미국《동맹》관계 70 년사이다.

민족사에 치욕만을 새겨놓은 이러한 친미사대굴종사, 미제침략군범죄사를 《기념》하고 미화분식하려는것이야말로 매국역적무리들의 쓸개빠진 반민족적, 반인민적추태가 아닐수 없다.

현실은 윤석열역적패당이야말로 민족적존엄이란 털끝만큼도 없으며 오직 뼈속까지 친미에 환장한 가장 추악한 식민지노복, 민족반역의 무리라는것을 다시금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조봉남

연변, 정월대보름 씨름경기, 지태림 '연변천하장사'에 올라

성인조+74kg 급 우승자 지태림 선수가 '전설의 씨름왕' 마동일씨로부터 황소고삐를 넘겨받고 있다.

2 월 5 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연변주와 연길시에서는 여러가지 다채로운 행사들을 펼쳐 시민들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놀거리들을 제공한 가운데 2023 년 연변조선족자치주 '새봄맞이·정월대보름' 민족전통 씨름경기가 연변체육중심종합관에서 펼쳐졌다.

중화민족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양하고 연변주와 연길시 전역관광을 적극 발전시키고 경사롭고 흥성흥성한 명절분위기를 조성하고저 마련된 이번 행사는 연변주체육국에서 주최하고 연길시문화라지오텔레비죤관광국에서 주관, 연변성주청소년체육구락부와 연변체육중심에서 협조했다.

이번 씨름경기는 소학교조-40kg 급-52kg 급, 중학교조-60kg 급-74kg 급+74kg 급, 성인조-62kg 급-74kg 급+74kg 급, 로인조 60 세이상급 경기로 진행되였다.

씨름경기 현장에는 수많은 관중들이 삼삼오오 구름처럼 모여와 선수들을 응원하였고 대회개막과 경기휴식시간에는 다체로운 조선족문예공연도 선보여 흥성한 명절의 분위기를 한결 돋구었다.

관중들의 응원 열기속에서 선수들의 박진감 넘치는 경기장면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손에 땀을 쥐게 했다.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했던 성인조+74kg 급 경기에서 지태림(룡정)이 우승을 따내여 명실공히 '연변천하장사'로 되였다.

그는 1962 년 연변조선족자치주 창립 10 주년 경축대회 씨름경기에서 우승보좌에 올라 소잔등에 올라타고 주덕해 초대주장으로부터 황소고삐를 받은, '전설의 씨름왕' 마동일 로장한테서 황소고삐를 전달받고 경기장을 돌면서 관중들로 하여금 당년의 감동적인 추억을 되새기게 했다.

씨름경기대회 각 급별 경기결과는 소학교조-40kg 급 -52kg 급에서 리장성(연길)과 허정삼(연길)이 각각 우승을 차지했고 중학교조-60kg 급-74kg 급+74kg 급에서 왕경함(룡정), 정준위(안도), 김덕운(연길)이 각각 우승을 차지했으며 로인조 60 세이상급에서 김충국이 우승을 차지했고 성인조 -62kg 급 -74kg 급에서 구정걸(훈춘), 김춘일(도문)이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강빈 길림성특파원





할빈시 정월 대보름 조선족전통민속행사 열려

2 월 5 일, 할빈시 정월 대보름 조선족전통민속행사가 할빈시조선민족예술관, 할빈시조선족녀성친목회, 흑룡강성조선족기업가협회의 공동주최로 할빈시 만한루 레당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 할빈시교육국, 흑룡강성교육학원, 흑룡강신문, 할빈시조선민족예술관, 할빈시조선민족사업촉진회, 흑룡강성조선족기업가협회, 할빈공업대학, 할빈공정대학, 할빈시 각 조선족 중소학교 등 단위 대표와 할빈시조선족녀성친목회의 수십명의 회원들이 참가하였다.

할빈시조선민족예술관의 리춘실 부관장이 예술관과 녀성친목회를 대표하여 축사를 올렸다. 그는 "윷놀이가 사실은 정월 대보름의 전통놀이이다. 할빈에서 해마다 3.8 절에 대규모의 윷놀이행사를 하게 된 원인은 여러 학교들이 아직 개학을 하지 않은 등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였다"고 말했다.

그는 "3.8 절 행사는 녀성의 명절이지만 녀성친목회의 회원들은 정작 행사준비를 하고 행사날에 일하느라고 제대로 명절을 즐기지 못한다"며 "그래서 오늘은 녀성 회원들의 로고를 위로하고 곧 다가올 3.8 절 행사의 예열 삼아 소규모로 행사를 마련하였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3 년동안 개최하지 못했던 3.8 절 윷놀이행사가 오는 3 월 4 일, 할빈시조선족예술관에서 열리게 되니 여러 중소학교를 비롯한 각 조선족 단위에서 최소 문예종목을 하나씩이라도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간곡히 부탁을 하였다.

이날 오전, 녀성친목회의 회원들은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행사시간을 훨씬 앞당겨 행사장에 도착하였다. 아름다운 명절 옷차림을 한 그들은 오래동안 못 보았던 얼굴들을 보자 너무 반가와 얼싸 그러안고 서로 안부를 묻고 수다를 떨고 함께 사진을 찍으면서 회포를 풀었다.

이어 래빈을 비롯한 모든 회원들이 함께 어울려 우리 민족의 정월 대보름 전통놀이인 윷놀이를 하였다. 점심식사에 이어 참가자들은 앞다투어 마이크를 잡고 흥겨운 가락을 뽑으면서 노래 실력을 한껏 뽐냈다. 흥겨운 리듬에 맞춰 회원들과 래빈들이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글 리인선 기자, 사진 정명자 등

김은장 복건성고급인민법원 원장으로 당선

북건성인민대표대회 공고

[14 기]제 4 호



복건성 제 14 기 인민대표대회 제 1 차 회의는 2023 년 1 월 15 일 김은장(조선족)을 복건성고급인민법원 원장으로 선거했다.

김은장 략력 :

김은장(金银墙), 남, 조선족, 1965 년 1 월 출생, 흑룡강 가목사 출신, 1987 년 7 월 사업에 참가, 1986 년 6 월 중국공산당에 가입, 길림대학 법률학부 법률전업대학 졸업, 법학석사 학위.   /인민넷

다시 향한 말귀산

- 심양시 소가툰구조선족중심소학교 4 학년 1 반 김주은

5.1 절에 우리 가족은 등산을 하기로 하였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보니 따스한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 등산하기 좋은 날씨였다.

우리는 물이랑 과일, 간식을 간단히 준비하고 목적지인 말귀산(马耳山) 을 향해 출발하였다.

산 아래 dp 도착한 나는 너무도 좋아서 당금이라도 날개라도 돋혀 산정상에 오르듯 싶었다. 아빠는 앞에서 성큼성큼 걷고 나와 동생은 아빠 뒤를 졸졸 따랐다. 산을 오르는 계단 량쪽에는 무성한 소나무가 초병처럼 꿋꿋이 서있었고 또 알 수 없는 나무와 들풀들이 봄바람에 하느작거리며 우리 보고 반갑다고 손짓하는 것 같았다. 코노래를 부르며 등산길의 경치를 감상하며 오르니 힘겨웠던 발걸음도 한결 가벼워졌다.

산중턱에 이르니 높고 낮은 산들이며 작은 집들이 한눈에 안겨오는 순간 가슴이 확 트이는 것 같았다. 자신이 이 모든 것을 다 품은듯 싶었다. 그 경치는 산아래서 본 경치보다 훨씬 웅장하고 아름다웠다.

저도 모르게 “높은 곳을 보려면 한층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는 시가 문뜩 떠올랐다.

우리는 힘들었지만 끝까지 견지하여 정상까지 올라갔다.

‘더 멀리 가지 않았다고 더 좋은 데 가지 않았다고 아쉬울 것 없어.’

세상에 멋지고 아름다운 유람지가 많고 많지만 나는 가족과 함께 다시 향한 고향의 말귀산이 그 여느 때보다 좋기만 하다.

평어: 다시 향한 말귀산의 아름다움을 쓰면서 가족과 고향을 사랑하는 꼬마작자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지도교원: 조금숙



흑룡강성의 14 기 전국인대회의 참석 대표에 조선족 3 명 올라

흑룡강성 제 14 기 인민대표대회 제 1 차회의는 2023 년 1 월 16 일 흑룡강성에서 제 14 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참석하는 대표(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확인) 84 명을 선출하였는데 그 가운데 려위, 김동호, 리운봉 3 명의 조선족이 이름을 올렸다.



려위 대표 (자료사진)

려위는 흑하시풍태동력전기제품교역유한회사 총경리로서 흑룡강성 13 기 인대대표이며 대러시아무역의 선두주자로 다국적 전자상거래에서 뛰여난 실적을 거두었다.



김동호 대표

김동호는 전국 13 기 인대대표이며 상지시 어지조선족향 신흥촌 당지부서기로 30 여년간 촌민들을 이끌고 향촌진흥의 길에서 분투함으로써 신흥촌을 '전국소수민족 특색촌', 농업부 '가장 아름다운 레저 향촌', '흑룡강성 문명촌'으로 건설했으며 그 자신도 흑룡강성 로력모범, 흑룡강성 우수 공산당원, 흑룡강성 선진 사업일군 등 영예를 따냈다.

리운봉은 학강시알파인스키팀(高山滑雪)의 코치로 있는데 선수시절 전국대회 우승, 아시아대회 3 위에 입상하는 등 화려한 경력을 쌓았다. 부상으로 은퇴하고 아버지 리진웅감독과 함께 학강시알파인스키팀을 이끌고 국가팀과 성팀에 수십명의 선수들을 수송하며 국내 알파인스키계에서 학강시의 립지를 다지는데 일조했다. /진종호 기자





따스해진 마음

(심양) 황혜영

얼마 전 꽃샘추위가 심한 날 나는 어린 손녀를 안고 심양행 렬차에 올랐다. 정해진 좌석을 찾아 손녀를 내려놓는데 한 청년이 칠십이 넘어 보이는 로인을 맞은 켠 좌석에 모셔놓은 후 자리를 뜨면서《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님이 병원에 입원한 팔십 넘은 당신의 언니를 마지막으로 만나보러 가시는데 제 막부득이한 사정으로 같이 가지 못합니다. 로형께서 잘 보살펴주세요》라며 로인 옆좌석에 앉은 사십대 남성에게 부탁하는 것이였다.

렬차가 역을 빠져나오자 부탁받은 남성은 로인에게 물도 건네고 말동무를 해드리면서 살뜰히 보살폈다. 헌데 불과 한시간도 되지 않아 로인은 갑자기 호흡이 거칠어지더니 머리가 아프다면서 쓰러지려 하였다. 렬차장이 달려오고 3 호 렬차칸에 위급한 환자가 있으니 려객중에 의사가 계시면 협조를 바란다는 방송을 수십차 내보냈으나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도 다행히 렬차장이 재빨리 로인의 아들과 전화련락을 하고 다음 정거장에 긴급구호 요청을 하여 20 여분 후에 지방병원으로 호송할 수 있었다.

렬차가 다시 출발하자 렬차장은 종이와 필을 환자 주위에 앉았던 다섯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서 로인을 구급하는 과정을 증명해달라고 하였다. 나는 요구대로 구급과정을 써주면서 이럴 필요가 있을가고 의심하였다. 그러면서 음력설야회에서 중국의 저명한 연출인 풍소강의 소품 "부축해야 하나 하지 말아야 하나"란 장면이 떠올랐다. 길거리에서 넘어진 로인을 만나면 빨리 부축해드리는 것은 인지상징인데 언제부턴가 감히 부축할 수 없게 되였고 또 이런 일이 전 사회의 열점화제로 떠오른 것을 풍자한 것이였다. 나는 지금까지도 그날 그 많은 려객들중에 의사가 한명도 없었을가 하는 의문을 버릴 수가 없다.

개혁개방을 거치면서 중국사람들의 전통미덕과 가치관념이 커다란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넘어진 로인을 부축했다가 로인과 로인 가족들에게 모함을 받아 억울하게 루명을 쓰고 심지어 법원놀음까지 당하는 현상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한 뉴스에 따르면 렬차에서 한 산모가 해산하게 되여 려객중의 한 녀의사가 자진하여 접생을 도와주었는데 후에 가족들은 접생중에 신생아가 감염되였음을 발견했다 한다. 하여 산모 가족은 그 녀의사를 법원에 기소하고 몇십만원의 손해배상비를 요구했는바 녀의사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니 그날 그 렬차에 의사가 있었다해도 나서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인민을 위해 복무하자"란 금빛찬란한 글자를 멜가방 두껑에 수놓아 메고다니던 시대를 머리속에 떠올렸다. 그 시절 우리는 길거리에서 넘어진 로인을 발견하면 부축해서 집에 모셔다 드리고 눈먼 봉사를 만나면 재빨리 달려가서 큰길을 건네주고 비오는 날 하급반 학생을 업어서 물도랑을 건네주고 오보호 로인들의 집에 가서 마당을 쓸어주고 물도 길어주었다.

그때가 옛말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서 언제부터 지금 시대가 이렇게 변했나 싶으면서 서글퍼진다. 넘어진 로인을 부축해주는 일은 아주 사소한 일 같지만 여기에는 중화민족의 전통미덕인 로인을 존경하고 공양하는 의식을 세세대대로 전해가는 문제가 아닐 수 없지 않는가! 앞으로 우리 후대가 명철보신하면서 돈만 따지는 랭혈동물도 된다면 아무리 경제강국에서 산다고 한들 얼마나 쓸쓸할가? 생각만해도 가슴이 아파난다……

며칠 전, 날씨가 하도 화창한지라 나는 손녀를 유아용차에 앉혀 동네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그런데 불시에 코피가 쏟아지는데 좀체로 멎지 않아 어쩔바를 몰랐다. 아들한테 전화해야 하는데 핸드폰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고 손녀는 또 겁나서 울음보를 터뜨렸다. 이때 한 사십대의 한족남자가 다가와서 핸드폰을 들고 겁내지 말고 조급해하지도 말고 천천히 생각하라면서 도와주었다. 그는 114 를 통해서 아들과 련락하고 우는 손녀를 달래면서 걸을 수 있으면 병원까지 같이 가주겠다 하였다. 이 때 옆을 지나던 한 이십대의 한족 처녀애도 달려와서 애기를 달래면서 도와나섰다. 병원 앞에 도착하니 아들애가 이미 도착했고 의사도 대기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는 성도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치료받고 오늘도 공원으로 산책나왔다. 생각할수록 고마운 사람들이다. 그날 너무도 당황해하다보니 그들의 이름도 묻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린다.

로인을 공경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우리의 전통미덕문화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렇다.《인지초성본선》이라고 인간은 태여날 때부터 선량하다. 아무리 금전가치가 팽창해지고 가치관이 변했다해도 인간이 타고난 선량한 미덕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개혁개방 폭풍취우의 변천시대에 극 소수 인간들에 의하여 더러워진 사회적 기풍도 개별적 현상일뿐이다. 돈도 후과도 심지어 자신의 목숨도 따지지 않고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 나서는 분이 많고 많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따스하고 아름답구나 하는 생각에 그날 렬차 안에서 그늘졌던 마음이 화창한 봄날처럼 따스해진다.

중국소식교육부: 올봄 전국 학교 예정대로 정상적으로 개학

특별 상황이 아닐 경우 학교 앞당겨 개학하지 않으며 학생 귀교 시간 연장하지 않는다

교육부 체육위생예술교육사 부사장 류배준은 9일에 있은 국무원련합예방통제기제 발표회에서 현재 전국의 전염병 예방통제 형세가 총체적으로 평온한 가운데 각지의 개학 준비가 대체적으로 잘 되여가고 있으며 올봄 전국 학교들에서 예정대로 정상적으로 안전하게 개학할 수 있다고 밝혔다.

2월 6일, 안휘성 회북시제3실험소학교 학생들이 새 교과서를 탔다. 당일 전국의 여러 학교들에서 봄학기 개학을 맞이했다. /신화사

류배준의 소개에 따르면 올봄 각지는 '을류 전염병 을급 관리'(乙类乙管) 후 처음으로 맞는 개학으로서 개학과 귀교는 근 3 억명에 달하는 교사와 학생들의 생활, 학습과 업무와 관련되는바 사회의 관심과 각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학교의 순조로운 개학과 학생들의 안전한 귀교를 확보하기 위해 각급 교육부문은 겨울방학 '잠복기'를 리용하여 일련의 업무를 배치함으로써 봄철 개학을 위해 각항 준비 사업을 잘하도록 지도했다.

1.정책 체계 보완 개학 위한 전염병 예방통제 지지

지난해말, 교육부는 국가 해당 부문과 함께 국가의 '을류 전염병 을급 관리'의 정책 요구에 따라 학교의 전염병 예방통제의 총체적인 방안을 제정하고 학교 전염병 예방통제 조작 지침을 발표했다. 또한 교정 전염병 상황에 대처할 여러가지 예방책을 발표하고 통일적이고 세밀한 조치를 취했으며 각항 요구를 세밀화 함으로써 올봄 개학을 위해 정책성 준비를 했다.

2.문건 발표 개학전의 각항 임무 확정

교육부는 음력설전에 개학 통지를 냈으며 전국 교육 계통의 전염병 예방통제 사업 영상회의를 열었다. 각급 교육부문은 학교의 개학 방안 제정을 지도하고 개학, 귀교와 관련된 각항 예방책을 보완했으며 개학전의 각항 사업을 잘하도록 지도했다.

3.연구감독 조사 진행, 학교의 개학 진척 지도

각지의 신청 상황을 보면 올봄 중소학교 개학은 소속 교육부문에서 통일적으로 배치했는데 주로 2 월초 정월대보름 전후에서 15 일 사이에 개학하며 대학교에서는 실제에 따라 절정기를 피해 합리적으로 개학 시간을 배치했는데 정월대보름 전후에서 2월말 사이에 집중된다.

현재 각급 교육부문에서는 한창 개학 준비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는바 봄학기 교정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4.부문의 협동 강화, 학교의 예방통제 능력 향상

교육부문에서는 위생건강, 질병예방통제 부문과 함께 중소학교 위생실, 보건실과 대학교 병원, 건강역참 건설을 강화해 전업 수준을 높이고 있다. 개학전후 교사와 학생들에 대한 건강 감측을 진행하고 전체 사생들의 건강 서류를 건립하며 건강봉사를 잘하도록 했다.

5.특별 양성 진행해 학교 방역 수준 향상

1 월, 교육부는 전국 학교 전염병 예방통제 능력을 높이기 위한 양성 사업을 진행했으며 지방 각급 교육부문에서도 관련 기술 양성을 진행함으로써 대중소학교 지도자, 의무일군, 방역일군, 학교 심리건강 교사, 중소학교 담임교원, 각 학교 보도원들이 정책과 형세를 잘 알고 기술을 잘 파악하도록 했다.

류배준은 다음과 같이 표했다. 현재 전국 전염병 예방통제 형세가 총체적으로 평온한 바 각지 학교들에서는 예정대로, 정상적으로 안전하게 개학할 수 있다. 특별 상황이 아닐 경우 학교에서는 앞당겨 개학하지 않으며 학생들의 귀교 시간을 연장하지 않는다. /출처: 신화사

신종코로바이러스가 어디로 갔을가? 전문가 응답

최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어디로 갔는가?'라는 문제가 광범한 토론을 일으켰다. 많은 성, 시 질병예방통제쎈터가 안내문을 발표하여 현재 많은 지역이 전염병사례가 산발하는 상태이고 새로운 변이바이러스를 검출해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날씨가 따뜻해짐에 따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 궁금해하는 네티즌들도 많다. 봄철, 여름철에 들어선 후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사라질 수 있을가?

현재 전염병사례가 산발하는 상태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최근 사람들은 주변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자가 아주 적어졌다고 느낀다. 북경, 호북, 사천 등 많은 성, 시 질병예방통제쎈터는 현재 많은 곳에서 전염병사례가 산발하는 태세에 처했고 새로운 변이주를 아직 검출해내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북경우안병원 호흡감염성질병과 주임의사 리동증은 전염병사례가 산발하는 것은 지난 한두달 동안 대부분 지역의 80%가 넘는 사람들이 감염된 후 형성한 면역장벽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단시간내에 예전과 비슷한 대량감염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이 아직 감염되지 않았기에 이런 산발이 다음라운드의 전염병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인체 항체수준이 떨어지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리동증은 항체수준이 떨어졌다고 해도 사람마다 동시적이지 않은바 어떤 사람의 항체수준은 빨리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늦게 떨어지기 때문에 보호작용 지속시간이 길어 다음라운드의 전염병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이 먼저 감염되고 어떤 사람들이 늦게 감염되여 정점이 그렇게 빨리, 맹렬하게 다가오지 않을 것이며 단시간내에 대량 감염되는 정황도 더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리동증은 면역력이 낮고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군체는 다음라운드의 전염병상황에서 감염이 비교적 빠른 군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감염된 적이 있고 백신을 접종했던 사람들은 백신접종의 기초에서 감염되는 돌파성 감염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2 차감염 또는 3 차감염이 되였다고 해도 중증 혹은 위중증일 위험이 비교적 작다고 인정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사라질 수 있을가?

독일 에센대학교 의학원 바이러스연구소 교수 륙몽길은 중국질병예방통제쎈터가 최근 공포한 일부 데터를 보면 신종코로나바이러스는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았고 현재 전염병감염정황이 완화된 것도 끝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잘못된 인식이다."라고 말했다. 리동증도 현재로 볼 때 신종코로나바이러스는 2003 년의 사스처럼 완전히 사라질 수 없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전세계 전염병정황이 동기화되지 않은데 현재 신규발생이 적은 곳도 있고 지속적으

로 정점을 찍는 곳도 많다고 해석했다. 사회면에 아직도 감염자가 존재하기에 누구나 재감염될 위험이 있다. 그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은 독감처럼 단계적일 수 있고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총체적으로 앞으로 중점적으로 보호해야 할 사람은 로인과 면역력이 낮고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 등 취약군체이다.” 리동증은 한면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을 자주 씻으며 집안통풍을 많이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것을 견지하며 다른 한면으로 백신 재접종을 통해 보호수준을 높일 것을 건의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임영화)

北京：2025 年全市污水处理率将达 98%

昨日，北京市水务局就《北京市全面打赢城乡水环境治理歼灭战三年行动方案(2022 年 7 月-2025 年 12 月)》以及《北京市推进供水高质量发展三年行动方案(2023 年-2025 年)》进行详细解读。据悉，这是本市第四个“治污三年行动方案”以及第一个“供水三年行动方案”。市水务局表示，两个“三年行动方案”总投资 280 亿元，预计可以新增就业 5 万人。其中，第四个三年行动方案将采取综合措施，改善河道水环境质量，实现中心城区溢流口、跨越口在场次降雨小于 33 毫米时污水不入河。

全市污水处理率已提升至 97%

北京青年报记者了解到，围绕解决本市最迫切、最突出的水环境问题，自 2013 年起，本市连续出台了 4 个污水治理三年行动方案。在第一个三年行动方案(2013 年-2016 年)中，全市污水处理率由 83%提升到 87.9%，基本解决了城镇地区污水处理能力不足问题；第二个三年行动方案(2016 年-2019 年)使全市污水处理率提升到 94.5%，基本解决污水直排、水体黑臭问题；第三个三年行动方案(2019 年-2022 年)全面消除劣 V 类水体，污水处理率提升到 97%，全市城乡水环境质量全面改善。

刚刚发布的第四个污水治理行动方案，将通过加快城镇地区合流制溢流污染治理、补强城镇污水收集处理能力弱项等开展城乡水环境歼灭战。到 2025 年，实现城乡污水收集处理设施基本全覆盖，全市污水处理率达到 98%。

副中心编制溢流污染控制工程规划

机制，其中，拟采取政府与社会资本合作(PPP)方式吸引社会资本参与城乡再生水厂(站)建设，吸引社会资本 100 亿元以上。......



央行、银保监会：按照合同约定做好客户提前还款服务

来源： 经济日报

近期，受投资理财收益率下行、新发放房贷与存量房贷利差拉大等多重因素影响，居民提前还贷情况有所增多。记者从业内人士了解到，针对近期反映较多的房贷提前还款难、预约时间长等问题，央行、银保监会 2 月 9 日召开部分商业银行座谈会，要求商业银行强化以客户为中心的理念，保障客户合法权益，改进提升服务质量，按照合同约定做好客户提前还款服务工作。

央行、银保监会要求，针对部分借款人违规使用经营贷、消费贷提前还款的情况，要求商业银行持续做好贷前贷后管理，加强风险警示；监管部门将加大检查处罚力度，及时查处违规中介并披露典型案例。

同时记者了解到，工农中建等多家银行近日已向分支机构下发通知，要求强化以客户为中心的理念，高度重视消费者权益保护，及时响应客户还款诉求，改进提升服务质量，加快处理积压申请，按照合同约定做好提前还款服务。

商务部：推进便民生活圈建设 畅通城市经济微循环

来源： 经济参考报

2 月 16 日，商务部新闻发言人束珏婷在新闻发布会上表示，近年来，商务部积极推进便民生活圈建设，会同有关部门先后出台指导意见和建设指南，在全国确定两批共 80 个试点地区，指导推动试点工作加快落地。下一步，商务部将会同有关部门在试点基础上，开展三年行动计划，全面推进便民生活圈建设，更好惠及百姓生活。

“城市一刻钟便民生活圈建设，是贯彻以人民为中心的发展思想、满足人民美好生活需要的重要体现，也是保障民生、恢复和扩大消费、畅通城市经济微循环的重要载体。”束珏婷说。

她给出一组数据，截至目前，80 个试点地区共建设便民生活圈 1402 个，涉及商业网点 28 万个，覆盖居民社区 2766 个，服务居民 3200 多万人，试点地区生活圈的商业网点布局更加均衡，设施业态更加丰富，市场主体更加壮大，服务功能更加全面，居民的获得感不断提升。

具体来看，束珏婷介绍，在推动试点建设方面，商务部主要开展了以下几方面工作：一是重点完善社区消费的供给设施。按照“缺什么、补什么”的原则，一圈一策，推动补齐便民服务设施短板，完善生活基本保障类业态和品质提升类业态，例如，让修鞋、配钥匙等“小修小补”规范有序回归百姓生活，让适老化服务、休闲娱乐等设施更加丰富，使居民生活消费更便利。二是重点推动社区消费的场景创新。顺应消费多元化、个性化的趋势，推动一刻钟消费服务圈、养老托育圈、休闲文化圈等各类服务功能更好融合，发展一批智慧商店等新业态，引导便利店、社区超市“一店多能”，拓展便民服务，推广网订店送、即时零售等线上线下融合新模式，打造消费增长的新引擎。三是重点培育社区消费的市场主体。加快发展综合服务型的商业中心、邻里中心，鼓励连锁企业门店进社区，支持开展社区促消费活动，激发市场活力。

最高检：五年来，我国刑事犯罪出现四类新变化

来源： 中国新闻网

最高检 15 日举行新闻发布会。会上，最高人民检察院党组成员、副检察长孙谦介绍，五年来，我国刑事犯罪出现了一些新变化：

一是犯罪结构变化明显，严重暴力犯罪发案减少。在被追诉的刑事案件中，超过 85%是判处三年以下有期徒刑以及不起诉的轻罪案件。

二是在发案和追诉数量上，四十多年来一直占发案和被追诉第一位的盗窃罪，2019 年开始退到第二位，被危险驾驶罪(醉驾)取代。2022 年危险驾驶罪占被起诉总数的 18.2%，盗窃罪占 13%。

三是网络犯罪危害日益严重。帮助信息网络犯罪活动罪上升明显，2022 年起诉此类犯罪 12.9 万余人，起诉数量已经占到第三位。电信网络诈骗犯罪近年来持续高发多发，2022 年起诉 3 万余人，但受害人数众多，给人民群众的财产安全带来了极大危害，也成为刑事检察追诉的重点。

四是金融证券犯罪严重危害国家经济、金融安全，五年来，检察机关共起诉此类犯罪 18.5 万余人，比前五年上升 28.2%，其中包括“明天系”“安邦系”“泛亚”“康美药业”等一批特别重大案件。



人力资源社会保障部办公厅 财政部办公厅 国家税务总局办公厅关于公布个人养老金先行城市（地区）的通知

人社厅函〔2022〕169 号

各省、自治区、直辖市人力资源社会保障厅（局）、财政厅（局），国家税务总局各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税务局：

为贯彻落实《国务院办公厅关于推动个人养老金发展的意见》（国办发〔2022〕7 号），根据《人力资源社会保障部 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报送个人养老金先行城市的通知》（人社部函〔2022〕62 号）要求，在各省（自治区、直辖市）申报的基础上，经研究，确定了个人养老金先行城市（地区）名单，现予以公布。自本通知印发之日起，在先行城市（地区）所在地参加职工基本养老保险或城乡居民基本养老保险的劳动者，可参加个人养老金。

请各省（自治区、直辖市）人力资源社会保障厅（局）会同财政厅（局）、税务局等相关部门，统筹做好本地区先行城市（地区）个人养老金宣传和落地实施各项工作，及时发现并妥善处理先行工作中遇到的情况和问题，总结先行经验，为个人养老金全面落地实施打好基础。

附件：个人养老金先行城市（地区）名单

人力资源社会保障部办公厅

财政部办公厅

国家税务总局办公厅

2022 年 11 月 17 日

云南 9 部门出台政策 优化重点群体创业环境

来源： 人民日报

记者从云南省人力资源和社会保障厅获悉：为推进优化营商环境促进市场主体倍增，着力改善创新创业生态，近日，云南省人力资源和社会保障厅、云南省发展改革委、云南省教育厅等 9 部门印发《云南省推进重点群体创业行动实施方案》（以下简称《方案》）。

《方案》明确，2023—2024 年，通过优化创业环境、落实扶持政策、提升创业服务，支持高校毕业生、农民工、退役军人、就业困难人员等重点群体投身创业活动，力争实现创业培训规模不少于 12 万人次、离校 5 年内高校毕业生新创业不少于 1 万人、新增返乡入乡创业人数不少于 5 万人、退役军人新创业不少于 5000 人，就业困难人员能够以更加灵活方式实现就业增收。

其中，在创业政策扶持方面，《方案》提出，加快落实创业担保贷款政策，按规定免除反担保要求，对因疫情影响流动性遇到暂时困难的借款人，给予原则上不超过 1 年的展期。同时，支持金融机构围绕“稳岗扩岗”创新产品和服务，加大贷款投放，推动小微企业融资成本稳中有降。此外，在加大创业载体建设支持力度方面，拓展省级创业孵化基地支持项目，计划认定一批返乡创业示范园，省财政安排资金予以支持。

“团结奋进新征程 奋楫扬帆再出发”二〇二三年网上重大主题宣传启动

中国网

本报北京 2 月 17 日电 （记者金歆）由中央网信办主办的“团结奋进新征程 奋楫扬帆再出发”2023 年网上重大主题宣传和重大议题设置发布启动仪式 17 日采取云连线方式举行。仪式上发布了“核心领航 思想指引”“光辉岁月 壮丽图景”“天下一家 命运与共”“文明家园 数字中国”等主题的重点项目。

据悉，按照中宣部统一部署，中央网信办统筹指导各地各网站，牢牢把握习近平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思想网上宣传首要政治任务，紧扣学习宣传贯彻党的二十大精神主线，精心制定 2023 年网上重大主题宣传和重大议题设置方案，六大篇章、225 个项目贯穿全年、融通中外。

仪式上还启动了“打卡中国——读懂中国式现代化”“新时代新机遇——跨国企业在中国”“文化‘两创’”“写意中国——探寻汉字起源”“未来已来·高质量发展看中国”“走进区域看发展”等六大网络主题活动。即日起，来自网络媒体的编辑记者等将走进改革发展一线，聚焦中国式现代化的生动实践，展现各地各部门推动高质量发展的举措成效。

달에서 보내는 하루, 지구에서는 한달!



정월대보름이 다가오면서 달을 감상하는 것이 중요한 일정중 하나가 되였다. 예전부터 사람들은 달에 대해 무한한 호기심과 기대를 갖고 있었다. 송대 소식(苏轼)은 ‘하늘의 궁전에서는 오늘 밤이 어느 시대인지 모르겠구나(不知天上宫阙，今夕是何年)…’라는 시를 썼다. 그럼 달에도 낮과 밤의 변화가 있을가? 달에서의 ‘하루’는 얼마나 길가? 천문과학보급 전문가가 그 비밀을 공개했다.

중국과학원 자금산천문대 과학보급주관 왕과초는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지구에 낮과 밤의 교체가 있는 것은 주요하게 지구가 끊임없이 자전하면서 한 지점에 때로는 해빛이 비추고 때로는 해빛이 비출 수 없기 때문이다. 천문학에서 지구의 주야주기를 서술함에 있어 전문적인 개념이 있는데 바로 태양일이다. 태양이 련속 같은 자오선을 지나는 시간간격이 바로 하나의 태양일이고 평균 24 시간이다.

지구와 류사하게 달도 끊임없이 자전하면서 낮과 밤이 교체되는 현상이 산생한다. 달의 자전주기는 약 27 일인데 공전 등 영향을 고려했을 때 달의 낮과 밤이 교체되는 시간은 27 일보다 조금 길다. 만약 태양일과 비슷하게 달의 태양이 같은 자오선을 두번 련속 통과하는 시간간격을 ‘하루’로 정의하면 평균 길이는 29.53 일, 즉 지구상의 삭망월(朔望月)의 길이이다.

왕과초는 “달의 ‘하루’가 지구의 한달과 비슷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사실상 삭망월과 달의 ‘하루’가 반영하는 것은 모두 달이 해빛을 받는 변화의 주기이다. 다만 이 주기는 지구에서 볼 때 달이 커지고 작아지는 변화이지만 달에서는 15 일 동안의 낮과 15 일 동안의 밤이다.”고 말했다.

우리 나라 신화이야기에서는 달을 ‘광한궁(广寒宫)’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과언이 아니다. 왕과초는 달의 낮과 밤의 온도차는 섭씨 300 여씨도에 달한다고 말했다. 낮일 때 달의 태양 직사광선을 받는 곳은 섭씨 120 도에 달하고 밤에는 달의 표면온도가 령하 180 도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는 ‘옥토끼 2 호’ 월면차와 상아 4 호 착륙기로 말할 때 아주 큰 시련이였는바 그런 까닭에 그것들은 월주(月昼)작업과 월야(月夜)휴면 두가지 모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달은 또 별을 보기 좋은 곳이다. 대기층이 없기 때문에 달에서는 언제 어디서든 모두 별을 볼 수 있으며 별도 지구에서처럼 ‘깜박’이지 않는다. ‘옥토끼 2 호’ 월면차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나는 아주 많은 별을 봤다’고 알려주기도 했다. 정월대보름 우리가 전통음식을 먹고 달을 감상할 때 ‘옥토끼 2 호’ 월면차와 상아 4 호 착륙기도 달에서 별을 보고 있을 것이다. 래원: 인민넷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상 강순남동지에게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이 축전을 보내여왔다

조선인민군창건 75 돐에 즈음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상 강순남동지에게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 위봉화동지가 축전을 보내여왔다.

축전은 조선인민군 전체 장병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훌륭한 축원을 보낸다고 하면서 **김정은** 총비서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확고부동한 령도밑에 조선인민군이 부단히 확대강화되고 민족해방을 쟁취하며 당의 령도를 수호하고 조선식사회주의를 보위하며 건설하기 위한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고있는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중조 두 나라의 전통적인 친선은 영원하다고 하면서 축전은 최근년간 두 당,두 나라 최고령도자들의 전략적령도밑에 중조관계가 새로운 력사적단계에 들어서고있으며 쌍무관계의 중요한 구성부분인 두 나라 군대의 전통적인 친선이 부단히 공고발전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축전은 중조 두 당,두 나라 최고령도자들의 공동인식을 진지하게 리행하고 두 나라 군대의 친선과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의지를 표명하였다.

한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에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부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전달되였다.

꽃바구니의 댕기에는 《조선인민군창건 75 돐경축》이라는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항일혁명투쟁연고자가족들의 경축모임 중국에서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 81 돐에 즈음한 항일혁명투쟁연고자가족들의 경축모임이 14 일 중국 베이징에서 진행되였다.

항일혁명투쟁연고자가족들,중국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발언들이 있었다.

장울화의 딸 장금록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생전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지니신 특출한 위인상을 높이 찬양하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김정일장군께서는 수십성상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혁명활동을 벌리시여 조선의 강성번영을 안아오시고 인민들에게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시였으며 중조친선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하시였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풍중운의 아들 풍송광은 **김일성**주석의 유훈을 받드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이 자력으로 강국건설의 길로 나가도록 이끄시였다, 또한 중조친선을 새로운 발전단계에 올려놓으시였다,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공적은 두 나라 인민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될것이다고 말하였다.

리재덕의 아들 우명은 **김정일**동지를 오늘도 잊지 못해하며 그리워하는것은 그이의 자주정신과 희생적인 헌신,불굴의 의지를 따라배우고 계승하기 위해서이다, **김일성**주석께서 개척하시고 **김정일**동지께서 이끌어오신 조선의 사회주의위업은 **김정은**총비서의 령도아래 시련과 난관을 극복하고 보다 휘황한 미래를 마련할것이다고 강조하였다.

상월선생의 아들 상소위도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토로하고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여 조선인민은 지난해 세계적인 동란속에서도 일심단결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세인이 주목할만한 성과들을 거두었다고 격찬하였다.

왕효명의 아들 왕민은 조선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고 절세의 위인이신 **김정일**장군은 중국인민의 친근한 벗이시였다고 하면서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가 있어 주체혁명위업이 승리적으로 전진하고 우리 나라가 모든 분야에 걸쳐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대외관계

duiwaiguanxi

조선인민이 이룩한 투쟁성과를 외국의 인사들이 격찬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기를 기운차게 열어나가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세계 진보적인사들의 열렬한 칭송의 목소리가 날을 따라 높이 울리고있다.

에스빠냐인민공산당 중앙위원회 국제비서는 다음과 같이 격찬하였다.

지난해는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적대행위가 그 어느때보다 로골화되고 악성전염병이 온 나라를 휩쓰는 등 참으로 어려운 한해였다.

그러나 조선인민은 이에 굴복한것이 아니라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김정은**동지의 탁월한 령도따라 모든 난국을 타개하고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련이은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이것은 어느 나라에서나 쉽게 이룰수 있는 성과가 아니며 오직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받는 조선인민만이 거둘수 있는 자랑찬 승리이다.

백두산체스꼬조선친선협회 위원장은 **김정은**각하께서는 담대한 배짱과 정확한 령도실천으로 미국과 그 앞잡이들과 당당하게 그리고 용감하게 싸우면 작은 나라도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수 있다는것을 전세계에 보여주시였다고 강조하였다.

2022 년을 돌이켜보면 조선은 모진 시련과 난관을 이겨내면서 자랑할만한 많은 성과들을 이룩하였다고 하면서 쓰르비아조선친선협회 위원장은 지난해는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조선인민이 당 제8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위대한 성과들을 거둔 해로 력사에 아로새겨질것이다고 찬양하였다.

에스빠냐 발렌씨아주체사상연구소조 책임자는 조선인민이 이룩하고있는 투쟁성과에서 커다란 힘과 용기를 얻고 주체사상을 신념으로 간직하기 위하여 더욱 분발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끝)

우리 나라 외무상 네팔정부 외무상에게 축전

우리 나라 외무상 최선희동지는 네팔정부 외무상으로 임명된 비말라 라이 뽀우디얄에게 19 일 축전을 보내였다.

축전은 오랜 력사와 전통을 가지고있는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여러 분야에 걸쳐 확대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그가 나라의 대외관계발전을 위한 사업에서 성과를 거둘것을 축원하였다.(끝)

우리 나라 외무상 뛰르끼예외무상에게 위문전문

우리 나라 외무상 최선희동지는 뛰르끼예에서 대규모지진으로 많은 인적 및 물적피해가 발생한것과 관련하여 메블뤼트 챠부쇼글루 외무상에게 8 일 위문전문을 보내였다.

전문은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동정과 위문을 표하면서 뛰르끼예정부와 인민이 지진피해의 후과를 하루빨리 가시고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안착시키게 되기를 바란다고 지적하였다.(끝)

성,중앙기관 일군들 수리아대사관을 조의방문

수리아에서 지진피해를 입은것과 관련하여 외무성,대외경제성,대외문화련락위원회와 조선수리아친선협회의 일군들이 10일 우리 나라 주재 수리아아랍공화국대사관을 조의방문하였다.

외무성 부상 박상길동지를 비롯한 일군들은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에게 깊은 동정과 위문을 표시하고 바샤르 알 아싸드대통령의 령도밑에 수리아정부와 인민이 피해후과를 하루빨리 가시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그들은 조의록에 글을 남기였다. (끝)

우리 나라 외무상 이란외무상에게 축전

우리 나라 외무상 최선희동지는 이란이슬람교혁명승리 44돐에 즈음하여 호쎄인 아미르 아브돌라히안 외무상에게 11일 축전을 보내였다.

축전은 반제자주의 한길에서 맺어진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여러 분야에 걸쳐 확대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그가 건강하고 사업에서 성과를 거둘것을 축원하였다.(끝)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가 로씨야련방공산당 중앙위원회에 축전을 보내였다

모스크바

로씨야련방공산당 중앙위원회 앞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로씨야련방공산당창건 30돐에 즈음하여 귀 당중앙위원회와 전체 당원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동지적인사를 보냅니다.

우리는 로씨야련방공산당이 사회적진보를 이룩하고 강력한 로씨야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는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하면서 당을 강화하고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간섭책동에 맞서 나라와 인민의 존엄을 수호하기 위한 귀 당의 활동에서 보다 큰 성과가 이룩될것을 바랍니다.

우리는 이 기회에 사회주의리념을 실현하기 위한 공동투쟁속에서 맺어진 우리 두 당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앞으로 더욱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주체112(2023)년 2월 14일

평 양 (끝)

여러 나라의 각계인사들 우리 나라 대표부들을 축하방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 81돐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의 각계인사들이 해당 나라 주재 우리 나라 대표부들을 축하방문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 함께 계시는 영상미술작품에 네팔 공산당(맑스-레닌주의),민족민주당,전국민주로조련맹,기자협회,선군정치지지협회,조선의 자주정치연구쎈터,선군정치연구 네팔문학연단,조선통일촉진 네팔위원회,네팔조선친선협회,라오스 건국전선,직업련맹,로병련맹,적도기네민주당 등 정당,단체,기관의 인사들이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스위스공산당 인사들도 우리 나라 대표부를 찾았다.

광명성절과 조선인민군창건 75돐에 즈음하여 **김일성김정일**명칭 전국벨라루씨 조선인민의 친우협회, 벨라루씨공산주의근로자당, 주체사상연구협회,도이췰란드반제연단,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국제적련대성그루빠 도이췰란드지부,에짚트자유사회주의자당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정계,사회계 인사들이 해당 나라 주재 우리 대표부들을 방문하였다.

한편 건군절을 축하하여 웰남국방성 대외국 성원들이 우리 나라 대표부를 방문하였다.(끝)

국제단신

guojiduanxin

따쥐끼스딴에서 눈사태

따쥐끼스딴에서 15 일 눈사태가 일어나 피해가 났다.

눈사태로 수도 두샨베와 고르노-바다흐샨주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10 명이 목숨을 잃고 22 채의 살림집이 파괴되였다.

교통이 마비되고 자동차들이 눈속에 묻혔으며 학교들에서 수업이 중지되였다고 한다.

해당 지역에 경보가 발령되였다.(끝)

여러 나라사이의 협조

중국과 이란이 14 일 농업과 무역,관광,환경보호,보건,재해구제,문화,체육 등 분야에서 협조할데 관한 문건에 조인하였다.

문건조인식이 중국의 베이징에서 두 나라 국가수반들의 회담후 진행되였다.

앞서 13 일 라오스와 캄보쟈는 국경확정에 관한 조약과 2023 년－2027 년 두 나라사이의 포괄적이며 지속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를 위한 행동계획을 채택하였다.

문건들은 캄보쟈수상의 라오스방문과정에 조인되였다.(끝)

이란이슬람교혁명지도자 국가방위력을 계속 강화할 립장 천명

이란이슬람교혁명지도자 쎄예드 알리 카메네이가 15 일 한 연설에서 국가방위력을 계속 강화할 립장을 천명하였다.

그는 최근 적대세력들이 이란의 방위력강화에 대해 무근거한 비난을 늘어놓고있다고 단죄하였다.

이란은 많은 원쑤들과 맞서고있으며 자기 자신과 자기 인민을 수호할 권리를 가지고있다고 그는 밝혔다.

앞으로도 국가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끝)

세계보건기구 M 천연두비루스감염증에 대처한 공중보건비상사태를 유지하기로 결정

세계보건기구가 15 일 M 천연두비루스감염증에 대처한 국제적인 공중보건비상사태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기구는 일부 나라와 지역에서 감염자들이 계속 발생하고있으며 겨울이 지나면 감염이 확대될 위험성이 더욱 커질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현재 유럽과 아메리카지역이 세계적인 M 천연두비루스감염자수의 95%를 차지하고있다.

특히 아메리카지역에서는 지난 6 주일동안 매주 200~250 명의 감염자가 등록되였다고 한다.(끝)

총기류범죄의 왕국-미국

미국에서 총기류에 의한 류혈적인 폭력행위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 사회적불안과 공포를 증대시키고있다.

지난 1 월 24 일 워싱톤주에 있는 한 상점에서 정체불명의 범죄자가 총을 마구 쏘아대여 3 명을 무참히 살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앞서 23 일에는 캘리포니아주의 해안도시 하프문베이에서 2 건의 총격사건이 벌어져 7 명이 죽고 1 명이 중상을 입었다.

범죄행위들은 주의 몬트레이파크에서 대규모적인 총격사건으로 20 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후 2 일만에 감행되였다.

전국적으로 1 월 한달동안에 50 여건의 대규모총격사건이 벌어져 3 600 여명이 목숨을 잃고 2 700 여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빚어졌다고 한다.

이 나라의 한 관리는 미국은 세계적으로 총기류에 의한 사망률이 가장 높은 나라이며 인구 1 인당 보유하고있는 총기류수가 1 정이상에 달한다고 하면서 이것은 미친짓이라고 개탄하였다.

이러한 비극적현실은 총기류소유가 법적,제도적으로 묵인조장되는 미국의 범죄적인 사회제도가 낳은 필연적결과이다.

미국에서는 총기류의 소유가 법적,제도적으로 허용되고 있어 상점과 거리들에 총기류에 대한 광고들이 빼젓이 나붙고있으며 누구든지 돈만 있으면 쉽게 살인무기를 구입할수 있다고 한다.

언제인가는 텍사스주 사법장관이라는자가 학교들에서 총기류범죄가 성행하는데 대처하여 교원들을 무장시키는것이 《최선의 방책》이라는 망발을 줴쳐대여 사람들의 경악을 자아냈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군수독점재벌들과 결탁된 미당국은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총기류의 판매와 소유를 통제할 대신 이를 묵인하고 적극 조장하고있다.

메릴랜드대학의 한 연구사는 소름끼치는 사건들이 터져 총기류규제문제가 상정될 때마다 당국은 여러가지 미완성구상을 내놓아 뒤죽박죽으로 만들어놓군 하며 그에 대한 사회적관심이 뜸해지면 발을 빼군 한다고 비난하였다.

인간의 생명을 파리목숨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반동적인 제도가 존재하는한 미국은 세계적인 총기류범죄국가로서의 악명을 언제 가도 벗지 못할것이다.(끝)

필리핀에서 지진

필리핀의 마스바떼주에서 15 일 리히터척도로 6.1 의 지진이 발생하였다.

진앙은 북위 12.3238°,동경 123.8662°되는 곳에 있었다고 한다.(끝)

빠나마와 남아프리카에서 교통사고

15 일 빠나마의 치리끼주에서 60 여명의 이주민들을 태우고 가던 뻐스가 고속도로에서 소형뻐스와 충돌하여 골짜기에 굴러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로 39 명이 목숨을 잃고 약 20 명이 부상당하였다.

앞서 13 일 남아프리카의 림포포주에 있는 도로에서 자동차가 마주오던 뻐스와 정면충돌하여 20 명이 목숨을 잃고 61 명의 부상자가 났다.

사고원인을 조사하고있다고 한다.(끝)

유럽과 아메리카지역에서 감염자와 사망자 증가

유럽에서 17 일현재 2 억 4 568 만 4 874 명이 신형코로나비루스에 감염되고 201 만 3 221 명이 사망하였다.

로씨야에서 감염자수가 2 213 만 7 084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39 만 5 727 명의 사망자가 났다.

북아메리카에서 1 억 2 416 만 5 491 명의 감염자와 160 만 6 934 명의 사망자가 확인되였으며 남아메리카에서 그 수는 각각 6 789 만 7 787 명,134 만 9 218 명에 이르렀다.

미국에서 1 억 492 만 7 529 명이 감염되고 114 만 1 945 명이 목숨을 잃었다.

브라질의 감염자수는 3 697 만 513 명으로 늘어났다.(끝)



우리 나라지형의 특징

우리 나라 지형은 수백만년전까지만 해도 지금처럼 높지 않았고 평탄하였다.

그러나 수차에 걸치는 지각운동에 의하여 동해안쪽이 높아지고 서해안쪽이 낮아지면서 땅비탈에서 변화가 생겼다.

지형이 높아진곳에서는 강물에 의한 깎임작용이 강화되면서 깊은 골짜기와 험한 산들이 생겼고 지형이 낮아진곳에서는 씻겨내려온 흙모래가 쌓여서 넓고 평탄한 벌이 생겼다.

우리 나라의 지형이 오늘과 같이 복잡한 형태를 가지게 되기까지는 실로 수백만년이라는 오랜 시일이 걸렸다.

우리 나라 지형의 일반적특징은 다음과 같다.

우리 나라 지형의 특징은 우선 산이 많은것이다.

국토의 거의 80%가 산지로 되여있다. 이름이 붙은 산과 봉우리만도 3 600여개나 된다.



그리고 해발높이 2 000m 이상의 산은 54개로서 국토면적의 0.25%이고 1 000~2 000m높이의 산지는 12.61%이다.

그러므로 1 000m 아래의 산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우리 나라의 평균해발높이는 440m이다.

이것은 세계륙지의 평균해발높이 875m 에 비해 훨씬 낮은것이다.

우리 나라지형의 특징은 다음으로 북쪽과 동쪽이 높고 서쪽과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낮아지는것이 특징이다.

우리 나라 지형의 특징은 또한 좁고 깊은 골짜기가 많고 따라서 강하천이 많은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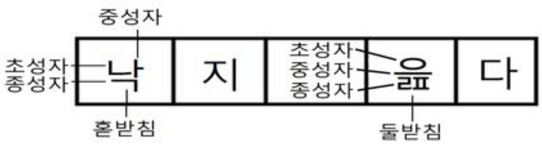
우리 나라지형의 특징은 마지막으로 세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때문에 해안선이 매우 긴것이 특징이다.

이처럼 우리 나라 지형의 특징은 산이 많고 북쪽과 동쪽이 높고 서쪽과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낮아지고 좁고 깊은 골짜기와 강하천이 많으며 해안선이 매우 긴것이다.



조선어의 받침이란 무엇인가?

什么是朝鲜语的收音?



조선어글자는 초성자, 중성자, 종성자의 원리로 만들어집니다. 제일 처음에 오는 글자를 초성자라고 합니다. 초성자로는 자음 19 개(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ㄲ, ㄸ, ㅃ, ㅆ, ㅉ)가 됩니다. 가운데 놓이는 글자를 중성자라고 합니다. 중성자로는 모음 21 개(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ㅐ, ㅒ, ㅔ, ㅖ, ㅚ, ㅟ, ㅢ, ㅘ, ㅝ, ㅙ, ㅞ)가 됩니다. 마지막에 놓이는 글자를 종성자라고 합니다. 종성자로는 받침 27 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ㄲ, ㅆ, ㄳ, ㄺ, ㄻ, ㄼ, ㄽ, ㄾ, ㄿ, ㅀ, ㄵ, ㄶ, ㅄ)가 됩니다.
종성자에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ㄲ, ㅆ》를 홑받침이라고 하며 《ㄳ, ㄵ, ㄶ, ㄺ, ㄻ, ㄼ, ㄽ, ㄾ, ㄿ, ㅀ, ㅄ》를 둘받침이라고 합니다.

朝语的文字大都是由初声、中声、终声构成。

在每个文字，第一个字母叫初声，初声有 19 个子音(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ㄲ, ㄸ, ㅃ, ㅆ, ㅉ)。第二个字母叫中声，中声有 21 个母音(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ㅐ, ㅒ, ㅔ, ㅖ, ㅚ, ㅟ, ㅢ, ㅘ, ㅝ, ㅙ, ㅞ)。第三个字母叫终声。终声有 27 个收音(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ㄲ, ㅆ, ㄳ, ㄵ, ㄶ, ㄺ, ㄻ, ㄼ, ㄽ, ㄾ, ㄿ, ㅀ, ㅄ)。
在终声中,《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ㄲ, ㅆ》叫做单收音,《ㄳ, ㄵ, ㄶ, ㄺ, ㄻ, ㄼ, ㄽ, ㄾ, ㄿ, ㅀ, ㅄ》叫做双收音。

받 침 개 수;
홑받침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ㅊ, ㅋ, ㅌ, ㅍ, ㅎ, ㄲ, ㅆ 16 개
둘받침 ㄳ, ㄵ, ㄶ, ㄺ, ㄻ, ㄼ, ㄽ, ㄾ,ㄿ, ㅀ, ㅄ 11 개
모두 27 개입니다.





송암동굴의 돌꽃풍경

어디 가나 명승, 명소가 많은 우리 나라는 땅속 또한 절경이다.
세상에서 으뜸가는 지하명승지인 송암동굴의 돌꽃풍경은 얼마나 황홀한가.
계절을 모르고 언제나 피여있는 돌꽃들이 조명등의 빛을 받아 갖가지 색조화를 펼치는 모양은 그야말로 장관이다.



송암동굴은 지금으로부터 약 １０억년전에 형성된 고회암층이 오랜 세월 용해, 용식작용을 받아 돌꽃, 돌고드름, 돌순 등으로 형성되면서 천태만상의 조화를 이루어놓았다.

동굴에는 관문동, 폭포동, 수림동, 백화동 등 수많은 명소들이 있는데 그 신비함과 황홀함은 찾아오는 사람들의 경탄을 자아내고있다.

송암동굴에는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며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발자취가 새겨져있다.

지하절경 송암동굴, 이는 아름다운 내 조국강산의 또 하나의 자랑이다.



계몽기가요

19 세기말-20 세기초 우리 나라에서 계몽기문학이 발생하면서 많은 계몽기가요들이 창작되게 되였다.

계몽기가요는 해방전까지 우리 인민들이 널리 부른 노래이다.

계몽기가요의 본질적특성은 계몽적인 내용을 담은것이라는데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 나라의 량심적인 문예인들은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통치하에서 민족음악을 지켜내기 위하여 계몽기가요들을 많이 창작하였다고 하시면서 계몽기가요들이 해방전에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까지 널리 보급되게 된것은 그 노래가사들에 그때 당시 우리 인민들의 사상감정이 통속적으로 잘 반영되였고 곡이 전통적인 조선민요의 형식을 많이 계승하였기때문이라고 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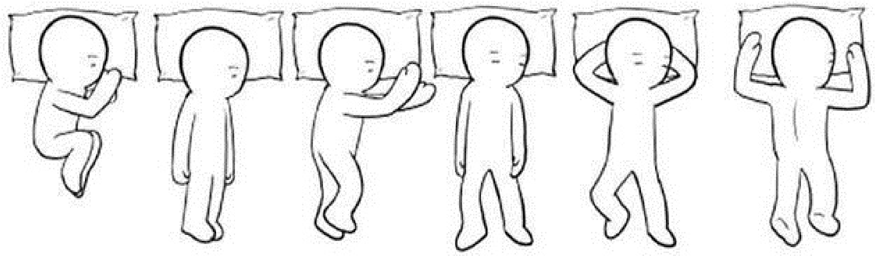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전통을 계승하면 력사가 빛나고 전통을 무시하면 력사가 없어지고 실패와 우여곡절을 면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음악예술부문에서는 카프시기부터 해방전까지의 공백을 계몽기가요들로 메꾸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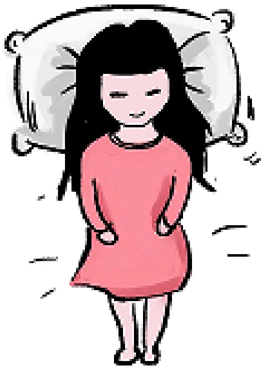
계몽기가요들에는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일치단결할것을 노래한 《동심가》와 같은 노래도 있고 《학도가》, 《운동가》, 《응원가》 등과 같이 향학열을 고취하거나 몸단련을 잘할데 대한 노래도 있다.

계몽기가요는 류행가로도 이야기되고있는데 그 노래들은 시대적제한성은 가지고있지만 조국을 빼앗긴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정서를 담고있다.

계몽기가요의 음악은 일반적으로 대조식으로 된 선률투와 단순한 악절 또는 2 부분형식으로 되여있어 전진적이며 부르기도 쉽다.

병세에 따르는 잠자는 자세





많은 질병은 잠을 잘 때의 자세가 합당치 못하여 유발되거나 더 심해진다.

따라서 자체로 혹은 방조를 받아 잠자세를 바로하는것은 질병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병세를 호전시키는데효과적이다.

폐결핵환자: 량쪽페에 다 병이 생긴 환자는 반듯이 누워자는것이 제일 좋다.

왼쪽페를 앓는 환자는 왼쪽으로 돌아누워자야 하며 오른쪽페를 앓는 환자는 오른쪽으로 누워자야 한다.

심근염, 천식, 심장기능부전환자: 절반정도 누운 상태에서 자는것이 좋다.

그렇게 하면 페에서의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페에 피가 몰리는 현상을 감소시킬수 있으며 산소흡입량을 늘여증상을 완화시키고 편의를 도모할수 있다.



중이염환자: 중이염환자는 일반적으로 앓는쪽의 귀에 고름이 가득 차게 되므로 고름이 빠져나올수 있도록모로 누워자야 한다.

뇌혈전환자: 뇌혈전증상이 있는 사람이 모로 누워자기까지 하면 혈액순환장애가 더 심해진다.

따라서 반듯이 누워자야 한다.

위궤양환자: 위궤양환자들은 오른쪽으로 누워자는것이 좋다.

심장병환자: 심장대상기능이 좋은 사람은 오른쪽으로 누워잘수 있다.

그러나 만일 심장기능부전증상이 나타난 환자인 경우 절반정도 누워 호흡장애를 덜어야 한다.

모로 누워자거나 엎디여 자서는 안된다.



고혈압환자; 고혈압환자 특히 로년기환자의 잠자는 자세는 절반 누운 상태 혹은 모로 누운 상태여야한다.

15㎝높이에 장방형의 넓은 베개를 사용하여 머리와 어깨를 모두 베개에 올려놓는것이 좋다.

추간판탈출증환자: 굳은 침대우에 바로누워자야 한다.

만일 모로 누워자는 경우 척추가 곧은 상태에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메기된장구이



▸ 재료

메기살편 200g, 된장 10g, 사탕가루 30g, 다진 파 10g, 국물 100g, 맛내기 2g, 소금 1g

▸ 만드는 방법

1. 그릇에 국물, 된장, 소금, 사탕가루, 다진 파, 맛내기를 두고 고루 저어 양념장을 만든다.

2. 양념장에 메기살편을 두고 재워놓았다가 구워 낸다.

조선의 민족료리

메기구이



▸ 재료

메기 1kg, 식초 5g, 기름 5g

양념장감으로 간장 160g, 볶은 포도술 250g, 식초 50g, 다진 파 20g, 다진 생강 10g, 월계수잎 1개, 풋고추 10g을 준비한다.

▸ 만드는 방법

1. 메기는 깨끗이 손질하여 살편을 뜬 다음 껍질을 벗기고 6㎝의 길이로 토막낸다. 뼈는 로에 넣고 밤색을 띠면서 뭇뭇해질 때까지 굽는다.

2. 남비에 구운 메기뼈와 양념장감, 물 100g을 두고 약한 불에서 물이 1/3 정도로 될 때까지 졸인다. 이것을 채에 밭는다.

3. 석쇠에 기름과 식초를 바르고 메기토막을 놓아 숯불에서 초벌 구운 다음 졸인 즙을 여러번 바르면서 구워 접시에 담아 낸다.

심양시모란문화예술양성쎈터



沈阳市牡丹文化艺术培训中心



艺术的摇篮　배움의 요람

심양시모란문화예술양성쎈터는 예술의 요람입니다.
심양시모란문화예술쎈터는 조선과 문화예술을 교류하면서 조선평양음악대학을 졸업하고 오래동안 예술에 종사한 조선의 우수한 선생님들을 초청하여 학생들을 지도하고있습니다.
모란문화예술양성쎈터에서 배운 많은 학생들이 전국예술콩클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本中心与朝鲜文化艺术部门进行长期交流。聘请了毕业于朝鲜平壤音乐大学，从事多年艺术工作的优秀教师。在朝鲜教师的 精心指导下， 本中心很多学员在全国各种文艺比赛中获得了优异成绩。

地址：沈阳市皇姑区三江街3-2
电话：024-86426512
13516032172

